

우리 모국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로 설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기독교 가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2월 27일 (토) 제 1815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무력한 코리아’ 아닌 ‘독립위한 저항세력!’

3·1운동 102주년...1919년 미 언론에 보도된 한국 상황과 평화적 독립운동 소개

'가장 아름다운 한국의 싸움' 3·1운동 당시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돌아간 선교사는 100년 전 우리의 독립만세운동을 이렇게 칭했다. 그가 '역사상 가장 평화적인 저항운동'이라고 불렀던 3·1운동은 인터넷도 휴대전화도 없던 102년 전 태평양을 건너 미국 땅에 닿았다. 워싱턴뿐 아니라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버지니아, 애리조나, 몬태나 등 미국 방방곡곡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비로소 미국에서도 한국(KOREA)이라는 나

라의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3·1운동의 의미는 전국이 들고 일어나 태극기를 흔들며 일본에 독립을 선언하고,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다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한국이 10여년 전까지만해도 반만년 역사를 가진 독립국이었고, 일본의 지배 벗어나기 위해 온 국민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 한국의 상황과 한국인들의 의지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린 계기가 됐다.

“한국인 민족주의자들은 3월 1일을 그들의 독립의 날로 삼았고 이날 전국의 모든 도시와 마을이 한국 독립을 위한 행진과 시위를 가졌다. 일본 당국은 수천 명의 시위자들을 체포했다. 그들의 옷을 벗겨 거친 나무 십자가에 매달았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을 요구하는 3.1운동이 시작된 지 며칠 뒤인 3월 13일 뉴욕타임스(NYT) 3면에 실린 '한국이 독립을 선언하다'란 기사의 일부 내용이다.

간금 타전(special cable)인 이 기사는 “한국의 독립운동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정보가 이곳에 전해졌다. 전국 각지 모든 계층의 일본인(한국인)들이 광범위한 운동 속으로 뛰쳐나왔다”고 시작된다.

사실상 3·1운동 소식을 주류 언론 NYT나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지(San Francisco Examiner)보다 더 먼저 알린 미국의 지방신문들이 있다. 그 중 서울에서 테일러 통신원이 전송한 AP 기사를 받은 알라스카 주의 콜도바 데일리 타임스(The Cordova Daily Times)와 몬태나 주의 그레이트 폴스 데일리 트리뷴(Great Falls Daily Tribune)지는 1919년 3월 10



1919년 3월 13일자 NYT는 3면 좌측 하단에 한국이 독립을 선언하다라고 보도했다.

일자에서 1면 배너로 “Korea Declared Independence”(한국 독립을 선포하다)라는 제목을 달고 톱기사로 보도했다.

그 외에 중요 지방신문들은 1919년 3월 10일자로 워싱턴 주 시애틀의 시애틀스타(The Seattle Star), 필라델피아의 이브닝 퍼블리셔(Evening Public Ledger),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 리치몬드 타임스(Richmond Times-Dispatch), 애리조나 주 피닉스의 애리조나 리퍼블릭(The Arizona Republican), 오레건 주 살렘의 데일리캐피탈저널(The Daily

Capital Journal), 네브라스카 주 오마하의 오마하데일리비(The Omaha Daily Bee) 등이다.

이처럼 3월 10일자 알라스카 주 콜도바데일리타임스와 몬태나 주의 그레이트폴스데일리리퍼블릭 등을 비롯한 미국 신문사들이 다룬 3·1운동 초기 기사의 출처는 샌프란시스코 국민

회 소식통, AP와 UP 서울통신원, 상하이와 베이징 그리고 도쿄 등에서 보내온 AP통신 등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미국의 대표적 주류 언론인 NYT와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는 3·1운동의 진면목을 꿰뚫어 심층 보도해 미국 조야에 '한국은 독립돼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의 작은 나라, 이름을 빼앗긴 한국이 3.1운동으로 인해 기억 저편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당시 최고 유력지인 NYT는 1919년 한 해 동안 총 91건의 한국·한국인 관련 기사를 전했으며 이 가운데 61건이 3.1운동과 직접 관련된 기사로 3.1운동에 크게 주목했다.

NYT는 15일자 7면 톱기사로 “한국인들은 여전히 일본과 싸우고 있다”는 속보를 이어간다. 이 기사에는 “4만명이 체포됐

(3면으로 계속)



시론
류응렬 목사



3면
푸른초장
이규섭 목사



4면
3.1운동 특별기고
그레이스송 회장

하나님 나라 향한 복음전파의 전진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복음전파의 전진은 계속되고 있다.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도 문서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2021년을 시작하며 새로운 필자들을 모시고 애독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한다.

새 필진: 시론-류응렬 목사, 6면 칼럼-백운영 목사, 송정임 사모
“One Story :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섭 선교사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이희갑 목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예배와 교회음악” 윤임상 교수

본지는 1, 2, 3면에 “시사” 관련 새로운 뉴스를 독자들에게 전하며, 2면에 발행인 칼럼을 게재하고, 3면에는 네 분의 필자를 선정해 시론을 게재한다. 기존 세 분의 필자 외에 이번에 류응렬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를 새 필자로 모셨다.

4면과 5면은 “목회”에 도움을 주는 칼럼과 설교, 기독교인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 알아본다.

6면은 오랜 동안 미전도종족을 소개하며 기도요청을 해왔는데, 이번 호부터 새로운 필자를 모시고 칼럼을 게재한다. 새 필진은 백운영 목사(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담임, “목회와 선교”), 송정임 사모(버지니아 St.Johns'UMC, “사모단상”)가 합류한다.

9면 목회서신의 필자는 기존 세 분 외에 김요섭 목사(열매교회)가 지난해 후반 합류했으며 잠시 중단됐던 여승훈 목사(남가주보배로온교회)의 칼럼도 계속 게재한다.

13면에는 홍요섭 선교사의 “One Story : 21세기 말씀의 삶” 연재를 지난해 후반부터 시작했다.

또 ‘교육과 생활’면인 14면에는 차세대 교육 전문가인 이희갑 목사가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연재를 시작했다. 격주로 게재됐던 “알기쉬운 IT칼럼”은 필자 윤승준 선교사의 건강상 이유로 1815호를 마지막으로 연재를 중단하게 됐으며 그 자리에 “포스트 코로나시대 ... 예배와 교회음악”에 대한 새 글을 게재한다. 필자는 윤임상 교수(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다.

본지는 항상 알찬 지면으로 복음전파와 아울러 독자들의 신앙을 고취시키고 정보를 제공하며 기독교 가치를 확고히 세우는데 그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 독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을 바란다.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서적/일번서적/백스텔러/성구/성화책자/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Y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j2000.usg.com / sjp2101@hugmail.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J.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응시자격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 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21년 6월 30일 이전(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는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 분.

고시과목

- a) 필기고시: (1) 교회사 (2) 조직신학 (3) 미국장로교회사 (4) 헌법 (이상 4과목)
- b) 제출고시: (1) 구약주해 (2) 신약주해 (3) 논문 (4) 설교원고 (이상 4편)

- 제출 고시 내용
- (1) 구약주해 : 창22:1-19
- (2) 신약주해 : 마5:1-12
- (3) 논문제목: 온라인 예배에 대한 개혁주의 견해를 논하라
- (4) 설교원고: 약5:7-11 / 약8:11-14
 - 설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것.
 - 고시 기간 중 설교실기고시를 치름.
- (5) 제출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부는 PDF 파일로 서에게 이메일 할 것.
 - 레터 (8-1/2" x 11") 용지를 사용 할 것.
 - 한글 11호 크기의 폰트 사용, 줄 간격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호 Double Space)
 -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결장과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매 정도).
 -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 할 것.
 -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이름에 본인이름 및 과목 주제 이름을 사용 할 것. (예: 조성훈구약주해.pdf)
 - 파일이 너무 크면 나누어서 이메일로 보낼 것.

c) 면접고시

서류제출요령

- a)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1년 3월31일 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c) 합격자 발표는 45회 총회기간(5월 18일~21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합격 증명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 a) 일자: 2021년 5월 11(화) - 12(수)
- b) 장소:
 - 동부: 퀸즈장로교회(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김성국 목사)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 서부: 대흥장로교회(Dae Hung Korean Church, 권영국 목사) 15411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응시서류

-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30일 포함)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b) 신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 c)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 d) 소속 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 e) 이력서(약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 년도와 교회, 세례집행자) 1부
- f) 명함만 사진 2장
- g) 고시료: \$100 (USD) Pay to the order of - KAPC

참고사항

-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송일용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월 11일-12일 총회고시장소) 중에 사용할 속소를 예약 할 것.
-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 바꾸지 말 것. 허락 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 당함.
 -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 할 것.

제출처

고시부서기 : 송일용 목사 (Rev. John Y. Song)
주소 : 1641 W. 185th St. Gardena, CA 90248
전화 : (818.282.0112) / 이메일 kappcpastor@gmail.com

기타문의

- a) 고시부 부장 : 김재호 목사 (Rev. Kim Jae Ho) ezrakim59@gmail.com (C) 646.270.5987
- b) 고시부 서기 : 송일용 목사 (Rev. John Y. Song) kappcpastor@gmail.com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장 : 조문희 목사
서기 : 이준우 목사
고시부부장 : 김재호 목사
고시부서기 : 송일용 목사

발행인 칼럼

봄을 이길 겨울은 없다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이번 겨울, 만만치 않다. 뉴욕을 비롯하여 동부에는 여러 차례 눈이 왔고 뜬금없이 텍사스와 남부에서도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봄이 오고 있다. 들어보시지 않으셨나. 봄을 이길 겨울은 없다는 말을. 이상화 시인은 물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는 걱정했다. “지금 -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겼네.” 시인이여, 걱정 마시라. 어떤 들에도 봄은 온다오. 우중충한 겨울에 웅크리고 있던 모습은 이제 떠나 보내자. 겨울은 지나간다.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에는 안렌델 왕국의 엘사와 안나라는 두 공주가 나온다. 언니 공주 엘사는 눈과 얼음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가 만드는 눈과 얼음은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 엘사는 안렌델 왕국을 겨울왕국을 만들어 모두에게 고통만 준다. 그러나 겨울은 엘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시 74:17).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예외 없이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 그러기에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도 의미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겨울이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만드신 겨울은 고통 가운데 자신의 내면을 성숙시킨다.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 봄을 준비케 한다.

김석균 찬양 사역자는 이렇게 외친다. 모두 지나가리라/ 눈보라 치는 겨울도 지나가리라/ 어둠의 긴 터널도 지나가리라/ 절망의 힘든 세월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내 앞의 모든 상황도 지나가리라/ 지금의 모든 고통도 지나가리라/ 견디기 힘든 시련도 지나가리라. 그렇다. 다 지나간다. 봄이 온다. 봄에는 모든 곳에 생명이 약동한다. 이런 봄을 겨울이 이길 수 없다. 봄은 더 이상 앉아있는 계절이 아니다. 봄이 오면 일어나야 한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가 봄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일깨워 준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봄을 맞는 우리는 일어나야 한다. 봄을 가지고 오신 주님은 사랑도 가지고 오셨다. 따뜻한 사랑을 가득 싣고 찾아온 봄이 춥다고 앉아있는 자를 일으킨다.

사순절을 영어로 lent라고 한다. 물론 부활절 전 40일, 주님의 수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를 말한다. 그런데 이런 글을 보았다. Lent의 어원이 고대영어복색어 lang에서 왔다고 한다. Lang은 “봄”을 뜻하며 “길어지다(lengthen)”의 의미도 갖고 있다는 글을 본 것이다. 그리고 보니 사순절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시작된다. 2021년 사순절이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봄이 올 것이 아니라 봄이 이미 온 것이다. 웅크린 자세로 봄을 살 수 없다. 이 사순절을 계속 겨울로 살 것인가, 새로운 봄으로 살 것인가를 결단해야 한다. 당당히 일어서자. 겨울보다 못한 봄을 살수는 없다. 이제는 일어나야 한다. 날 위해 모든 것을 쏟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접어두고 사순절이야기를 할 수 없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킨다.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아니던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자. 포기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서자. 봄을 이길 겨울은 없으니 이미 봄에 머물면서도 어이없이 겨울에 지지 말고 살자. 그리고 이 봄에 더 길어지고 더 깊어지도록 하자. 사순절이 되니 낮이 조금씩 더 길어지지 않던가. 주님께 기도 더 길어지는 주님과 교제의 계절이 더 길어지는 사순절 봄을 살자. 봄을 이길 겨울은 없다

백신 접종 과도기...교회 헌장예배 재개 어떻게?

CT, 공중보건전문의 대니얼 친의 대면예배 5가지 준비사항 제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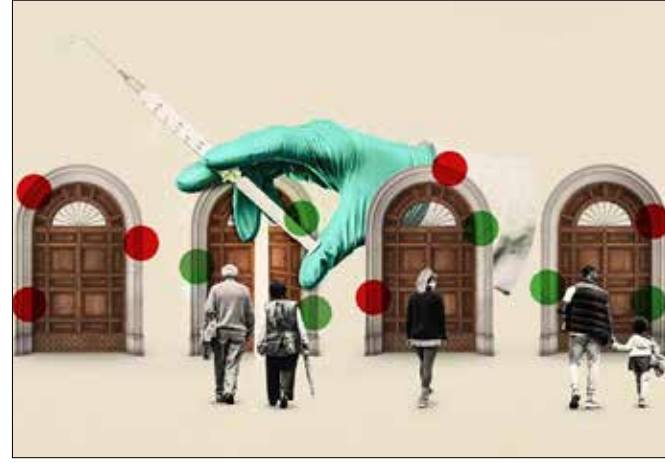
지난 열 달 동안 대면모임이 제한되고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들도 팬데믹에 지쳐가고 있다. 그리고 모두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함께 우리 사회와 교회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크리스차니티투데이(CT)는 공중보건전문의 대니얼 친(Daniel Chin) 박사의 글을 통해 백신 접종 과도기에 대면예배를 위한 준비사항을 5가지로 보도했다. 대니얼 친은 세계 공중보건 분야 25년 경력을 가진 폐 전문, 중증의학 및 역학 전문의

사다. 2003년 중국 사스 전염병을 막기 위한 WHO의 지원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 과도기를 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교회 모임에 관한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백신 접종 범위가 증가함에 따라 교회가 다시 모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섯 가지를 2회로 나눠서 제안한다(Where Two or More Are Vaccinated: Advice for Churches in 2021-Five science-based suggestions to gather and worship safely as COVID-19 vaccines roll out).

안타깝게도 저소득 국가에 사는 많은 크리스천 형제자매들은 빨라도 2022년까지는 백신을 맞지 못할 것이다. 나(다니엘 친)는 25년 넘게 그런 가난한 나라들에서 전염병 확산을 막는 일을 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12월 코로나19 백신 출시가 시작된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가을이 돼야 백신 접종률이 70-90%에 도달하고 집단 면역이 달성될 것으로 예측한다. 그 이후



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위해 3개의 그림을 만들었다.

부분적 백신 접종기간은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이 생기고 감염률이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지속된다. 이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새로운 코로나19 변종의 전염성뿐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의 가용성, 효과 및 흡수율에 영향을 받는다. 미디어는 앞으로 몇 달간 이러한 문제

백신 접종 받아도 타인에 전파 가능성 여전히 있어 변종 10-70% 더 전염성 강하나 현 백신 효과 기대

에야 비로소 사회가 일상적인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앞으로 몇 달간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과 맞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 사회에 공존하는 전환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에는 아직 안전하지 않다.

이러한 과도기에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의 대면모임과 관련해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백신 접종은 지역사회마다 다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고, 교회 성도의 백신접종 여부는 같은 지역의 교회에서도 서로 다를 것이기 때문에 모임에 대한 하나의 접근법은 없다.

나는 고향 시애틀에 있는 4개 교회가 이 전환기에 대처할 계획을 세우는 일에 자문

했다. 그 자리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당면한 복잡한 문제들과 씨름하는 모습을 보았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성도가 대부분인 교회의 담임목사인 제임스 브로튼은 이렇게 말했다. “아직은 유동적인 것이 너무 많은 복잡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하기 위해 과학적 지식과 경건의 지혜가 모두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나눈 모든 사람은 교회 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교회가 다시 모이길 권면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팬데믹 시기의 교회 모임에 관해 CT에 기고한 이전 기사(Should Your Church Stop Meeting to Slow COVID-19? How 3 Seattle

Churches Decided. A global health expert offers tools for your congregation to respond now)와 마찬가지로, 나는 두 가지 이정표, 성경적 진리와 과학적 지식을 사용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고자 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교회모임에 미치는 영향

교회 지도자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모임을 결정할 때 3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 교회모임의 필요와 요구,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염률, 교회성도의 코로나19 감염 및 합병증의 위험이다. 저는 이 3가지 요소가 3단계의 백신 접종기

에 대해 보도할 것이며,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면 교회는 계획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첫째, 과학자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백신 접종을 받은 개인이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확신하지 못한다. 최근 승인된 백신은 바이러스의 심각한 합병증을 포함해 코로나19 질병의 위험을 90% 이상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백신 접종을 통해 퍼질 수 있다면, 우리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개인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코로나19로부터 백신 접종을 받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및 기타 수단을 계속 써야 한다. 그러나 이것의 목적은 코로나19 합병증을 막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제한하는 것이다.

(3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Joon Mo Myung, MD, a medical professional with various specialti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Bethesda Dental, offering dental services and contact details.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including publication details and subscription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FAMILI STUDY, a research project at NYU Langone Health focusing on diet, environment, and chronic diseases.

Advertisement for a church confirmation class, detailing requirements, fe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lley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무력한 코리아’ 아닌 ‘독립위한 저항세력!’

(1면에서 계속) 독립운동 리더들이 전하기를 일본 군인들은 한 소녀가 성명서를 한 손으로 들고 있을 때 칼로 손목을 잘랐고 소녀가 다른 손으로 성명서를 들자 그 손마저 잘랐다"고 전했다.

이러 신문은 3.1 정신을 담은 독립선언문은 6월 15일자 6면 톱기사로 소개했다.

“한국이 독립을 선포하다”는 제목의 이 기사는 ‘강권으로 이뤄진 낡은 질서를 부정하다’는 소제목과 함께 ‘조용한 은자의 왕국으로 4252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나라가 33인의 시민들이 서명한 문건을 통해 한국 국민의 자유를 선포했다’며 독립선언문의 전문을 그대로 소개했다.

3.1운동에 주목한 것은 뉴욕타임스뿐만이 아니다. 또 하나의 유력지 워싱턴포스트는 1919년 4월 6일자 기사에서 ‘한국의 반란자들이 조직되다(Korean rebels organize)’라는 제목으로 미국 언론 최초로 임시정부 수립을 보도했다.

또 보스턴에서 발행되던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는 미국독립기념일인 7월 4일자에서 특별 사설을 통해 일본의 한국 무력 합병을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한일강제병합이 발표된 1910년을 전후로 미국 신문에 등장한 한국의 모습은 무기력하고, 우울했다. 하지만 3·1운동이 벌어진 1919년 이후 급증한 한국 관련 기사 속 한국과 한국인의 모습은 10여 년 전과 180도 달랐다.

1919년에 미국 신문 속에 나온 ‘KOREA INDEPENDENT’가 포함된 보도만 402건이다. 이 400여 건의 기사 중 1면에 보도된 기사만 129건에 달했다.



129건을 전부 살펴 3·1운동과 독립활동을 직접 언급한 보도가 얼마나 될지 확인해보니, 60%에 달하는 76건의 기사가 3·1운동과 독립선언, 한국인들의 만세운동 소식을 직접 전하고 있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도시 섬터 지역지 ‘와치맨 앤 서드런’의 1919년 3월 22일자 1면에는 ‘Korea’s Fight Most Wonderful’(가장 아름다운 한국의 싸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

려 있다. 기사는 “한국에서 막 돌아온 미국인 선교사는 그곳에서 벌어진 독립운동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평화적 저항운동이라고 설명했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당시 벌어진 3·1운동이 얼마나 평화적인 저항운동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기사다.

129건 중 35건에 달하는 파리강화회의 관련기사 역시 한국의 독립의지를 보여주는 독립운동 관련기사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이 1919년 5월 신한청년당 대표로 참석한 김규식이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해방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접수했다는 기사이기 때문이다. 탄원서에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1910년 8월 체결된 일본과의 (강제병합)조약을 무효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국, 129건의 보도 중 미 의회(CHRONICLING AMERICA)에서 아일랜드, 필리핀과 함께 한국 독립문제를 논의한 기사 등 기타로 분류한 18건을 제외한 111건의 보도가 모두 한국의 독립의지를 미국에 널리 알린 보도였다. 극동의 조선이라는 나라가 ‘무력한 코리아’에서 ‘독립을 위한 저항세력’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소개됐다.

(편집부)



시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류응렬 목사 (와싱턴중앙로교회)

지난 1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도를 담당한 목사는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다양한 신앙의 이름으로 아멘)으로 마쳤습니다. 목사로서 그렇게 기도를 마치는 것에 저를 비롯한 많은 크리스천은 실망과 아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미국하원개원과 버지니아의회 개원 때 그리고 올해도 버지니아 의회를 시작할 때 개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부탁 받을 때마다 방송을 지켜보는 사람들과 의원들의 종교도 다양하기 때문에 민감한 종교적인 표현을 자제해 달라는 지침을 보내옵니다. 6년 전에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소개로 국회 개원 기도를 인도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 후로 얼마나 많은 이메일과 전화 그리고 손으로 쓴 편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외국인이 미국 국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줘서 고맙다는 인사였습니다.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이 대단한 일처럼 칭찬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의회 때도 마찬가지로 지침을 보내옵니다. 수년 전에 의회에 도착해서 기도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의원님들 종교가 어떻게 됩니까?” 개신교, 가톨릭, 이슬람, 힌두교, 유대교, 무종교 등 다양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좋습니까?” 저를 안내하던 분이 한 말입니다. “목사님인데 당연히 좋지요.”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목회자에 대한 당연한 예의인 줄 알았습니다. 저를 인도한 팀 휴고 의원이 저에게 던진 첫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랜 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올해 초에도 버지니아 의회 개원 때 기도 인도를 받았습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침을 받았지만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무리 공식적인 지침을 문서로 강조한다 해도 세상이 신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신자다운 모습입니다. 성경을 믿는 목사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목사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특권이요 복음의 선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시대입니다. 올해 버지니아 의회 개원 때의 기도문입니다.

Creator God, we thank you for giving our representatives in Congress the privilege of serving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May their hearts be filled with gladness, may their plans bear good fruit, and may their endeavors grant peace, safety, and happiness to those they represent. 창조주 하나님, 의원들이 미국 국민을 섬길 수 있는 특권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들이 섬길 때 마음에는 즐거움이 넘치고, 계획하는 일마다 좋은 결실 맺게 하소서. 이들의 대표하는 지역마다 평화, 안정,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We ask that you would give them discernment to make accurate decisions, wisdom for weighty matters, and Courage for choosing right over wrong. May these members of Congress love their work and their people and radiate warmth and comfort when their communities shed tears of suffering. May they be intimate friends who share in the joy of their communities and be respected for the hope and happiness they bring to the table.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때는 분별력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지혜를,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할 때는 용기를 주소서. 맡겨준 사람들과 사명을 사랑하고, 지역 주민의 아픔에 눈물 흘릴 줄 아는 따스한 사람, 지역 주민의 기쁨에 함께 즐거워하며 희망과 행복을 선포하여 존경 받는 의원들 되게 하소서.

Whenever they sit to discuss weighty matters, help them Lord to decide based on the needs of the people, rather than according to their own interests. Help them govern wisely, knowing how to turn seeds of conflict into a harvest of unity. May their families proudly remember their legacies. May history record their names with joy. We thank you God, and honor these men and women for their service. I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개인의 관심이 아니라 주민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며 다른 의견을 만날 때 분열의 씨앗이 아니라 화합의 결실을 맺게 하소서. 훗날 가족들은 그들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떠올리며 역사는 그들의 이름을 즐거이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들의 섬김에 존경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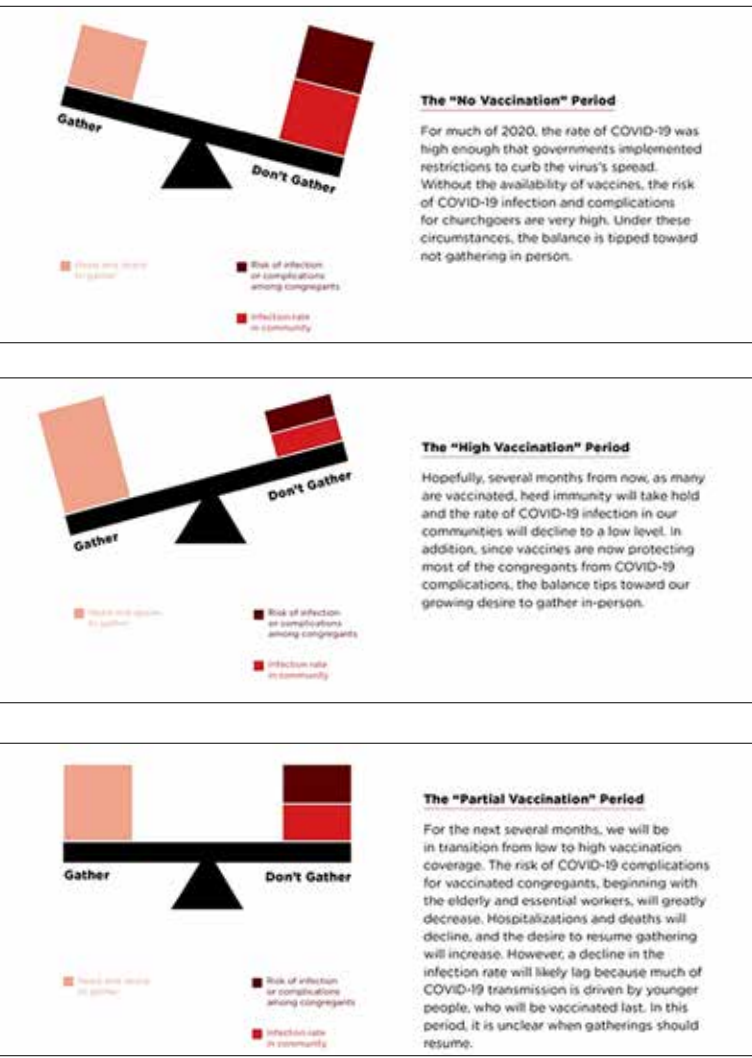
preachchrist@kcpc.org

(2면에서 계속)

둘째,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변종은 10-70%까지 더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종은 전염병을 악화시키고 연장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의 코로나19 백신이 이러한 변종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코로나19 변종의 확산은 집단면역이 생기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어서, 교회는 언제 어떻게 모임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한다. 바이러스 변종이 예상대로 우리 지역사회에 퍼지면 교회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의 제안을 더욱 더 따르기를 촉구한다. 코로나19와 모든 변종은 비강 분비물과 호흡기 비말을 통해 퍼지기 때문에 감염을 억제하는 방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이하 제안은 이러한 변형의 확산과도 관련이 있다.

(다음호에 계속)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21. Includes sections for Candidacy Qualification, Exam Subjects,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Exam Date and Place, Accompanying Documents, Miscellaneous Information, Submit To, and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림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길

공원 한편에 옛 길을 발굴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했다. 마차가 서로 비켜가는 힘든 너비로 비아아 피아보다는 좁지만 더 오래된 길이다. 안내판에는 로마이전에 거주했던 에트루스 족(BC 8세기)들이 사용했던 길인데 BC 380년경에 만들었다고 한다. 오래전부터 마을과 마을

을 잇는 길로 존재했었는데 공화정시대에 비아아피아처럼 돌을 깔아 튼튼한 길로 확장했을 것이다. 깔아놓은 돌에는 마차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깊이 파여 있다. 돌이 깊이 파일 이 정도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마차들이 이 길을 따라 오갔을까 싶다. 그들은 모두 세상

을 떠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파인 자국들만 길에 남아있다. 그 길은 오토이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길은 무엇일까? 왜 길은 이처럼 생겨나는 것일까? 다양한 취미와 기호를 가진 인생들이 눈에 좋은 대로 터를 잡기 위해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닌다. 어떤 자연인은 그 깊은 산 계곡에 자리 잡기 위해 십여 년 이상을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한다. 것처럼 사람이 자신의 동지를 만든다는 어려운 일이다 싶다. 나 역시 그중 한사람일 테고.... 충청도의 시골에서 태어나 서울로 갔고 서울에서 또 낯선 곳 로마로 왔고 이곳에서 40여 년간을 살면서 길을 만들고 있으니 말이다. 나의 친구는 시골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남미로 남미에서 뉴욕으로 뉴욕에서 다시 서울로 들어오니 거주에 대한 것은 순전히 내 뜻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른다. 그것이 그가 만

드는 삶의 길인지도 모른다. 오래 전에 나폴리에 있는 나토 기지에 근무하는 국제 결혼한 가정이 모이는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이십여 년 가까이를 다녔다. 그들의 간증에 의하면 조국에 살면서 비행기가 머리 위를 지나갈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짐했다고 한다. 나는 언젠가는 저 비행기를 타고 조국을 떠난다고, 그랬더니 때가 되니 미국을 가게 되고 또 이곳 나폴리카지 오게 되었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나폴리의 삶은 그들이 만들어가는 하나의 길일 것이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길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길도 존재할 것이다. 삶의 방법도 길일 수 있고,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나름대로의 길이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탁자보다도 작은 바둑판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어떤 사람은 그 위험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위해 꿈을 꾸며 살

아간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울랐던 길이 아니라 한 번도 오르지 않았던 길을 개척하려고 말이다. 그것은 목숨을 버릴 각오 없이는 이를 수 없는 길이다. 길을 내리는 사람들, 그들의 노력과 열정은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다. 때로는 그 길에서 동료가 죽어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인간들의 몰골을 가리지 않는 열정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다. 바닥에 깔려 있는 돌들은 수많은 사람들과 마차들이 다녔는지 닳았고 윤기가 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다녔을까? 아마도 온갖 사연들이 길에는 담겨 있을 것이다. 기록이 지워진 핸드폰을 포렌식으로 다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기술력이 발달되어 저 닳아진 길을 포렌식으로 찾아낼 수 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새롭게 밝혀질지도 모른다. 인생은 누구나 살아가는 만큼

길을 만들게 된다. 오히려 길을 만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 길은 아주 작은 부분만 알려지고 대부분은 개인적인 기억에 저장된다. 수척스럽고 부끄러운 부분들, 죄스러운 편린들은 모두 내 속에 꼭꼭 숨겨둔다. 그 누가 나의 길을 이렇다, 그러니 나의 길을 따라오라, 말할 수 있을까? 길지 않은 인생길인데 남은 여정만큼은 자랑스러운 자국을 만들어야겠다 싶다. 돌을 깊은 자국을 만든 마차, 아마도 마차 주인은 바퀴를 더욱 강한 쇠로 덧씌웠는지 모른다. 그 강한 바퀴가 누워 있는 돌 판위를 사정없이 지나칠 때마다 깔린 돌은 비명을 질러야 했고, 그 비명들이 저 깊은 상처를 내게 되었다. 길, 나의 길이야말로 그 누구에게 상처를 만들 수 있다. 조심하지 않으면... 이왕 내는 길이라면 아름다운 길을 만들고 싶다.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이규섭 목사
(뉴욕 제자삼노교회)



떠한 분이냐가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자와 공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히11:6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의 신념과 크게 다른 이유는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민족의 고난

다니엘은 9장에서 ‘우리’라는 대명사를 무려 28번이나 사용하였습니다. 자기를 포함한 유다백성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무슨 죄가 그리 많았을까요? 그러나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죄의 고백을 하던 다니엘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공물이 많으신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하였다(단 9:8-9).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물에 의한 것임을 믿고 바라보며 기도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며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다니엘이 볼 때 인간을 구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이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물을 의지하며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단9:23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 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사자를 보내어 자기 계획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응답은 그의 기대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포로에서의 귀환과 예루살렘의 재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철심이레 이후) 메시아에 의한 그 백성의 구원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모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역을 이동하면 쿼런틴(격리)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대부분이 쿼런틴을 경험하며 현장예배도 제한된 상황에서 간신히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도 포로시절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즉 현장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때 그는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장소는 달랐어도 그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온전한 예배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예배’가 어려운 이 때에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예배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다니엘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길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가야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멈추지 않는다면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돌아오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억지로라도 멈추게 되었다면 혹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나라 잃은 아픔 속

에서 어린 나이에 이방에 포로로 끌려가서 왕 넷을 섬기며 고위직을 지냈습니다. 그는 단지 성공신화만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는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의 특징은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과 메대 파사왕들, 즉 느브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왕들의 총애를 받으면서 관직을 수행하며 수십년의 세월을 이국땅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기하는 무리들이 그를 모함하여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어도 그는 굴하지 않고 기도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특히 9장에는 그가 무너진 예루살렘성과 황폐한 조국을 위해 애절하게 기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단순히 애국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단9:2 “곧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

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우리는 기도할 때 아무래도 자기 주변을 위해 기도할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경영하는 사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길 원하십니다. 다니엘에게도 주변에 직면한 사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씀을 읽고 깨닫고 보니 기도제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 때 참된 기도제목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습니다. 단9:4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 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사실 기도는 내용보다 일단 그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

다니엘의 쿼런틴 다니엘 9장 18-19절

이 죄 때문임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는 전적으로 그 백성의 죄 값인 것을 인정하며, 그 죄를 원통히 여기며 슬퍼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오늘의 문제가 우리 죄 때문임을 알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나 환난이 있으면 남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고통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사람의 기도는 공중만 울립니다. 환란이 오면,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임을 겸허히 인정하며 자기의 허물을 슬피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단9:7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우리도 통성기도 할 때 주어진 3장을 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주님을 한번만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간절할 마음이기엔 ‘주여’를 세 번 부르며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었나?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단9:18-19). 물론 주문처럼 의미 없이 부르며 돌리며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사람의 기도는 공중만 울립니다. 환란이 오면,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임을 겸허히 인정하며 자기의 허물을 슬피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단9:7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결론
요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 움츠리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억지로 쿼런틴을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단 한 가지, 기도 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슷한 환경에서 드린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현장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기도한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ksl0191@gmail.com

출판에 대한 문의는 히즈핑거 (His Finger)

천성은 있습니다. 천성에 가야합니다. 누구나 짧은 길던 이 세상에서 일생이라는 여정을 끝내면 영원한 곳에서 살게됩니다.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천성 가시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대답하셔야 합니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다음세대를 겨냥한 사악한 법안들 소개(2)

SB 245-Health care coverage: abortion services: cost sharing(2021-2022) (시민 동의 없이 시민의 세금으로 '낙태 의료보험서비스' 비용까지 내게 하는 발의안)



떻게 취급하게 될까요? 이들이 말씀대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SB245에 반대의 목소리들

저희 단체를 비롯하여 많은 캘리포니아 친생명(pro-life) 지도자들은 이 발의안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중 California Family Council의 관련 책임자 Greg Burt는 "이 법안을 옹호하는 데 사용된 기만적인 표현은 낙태라는 것이 심각한 건강 상태를 가진 취약한 여성들에 대한 동정심어린 치료처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임신은 질병이 아니며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삶을 끝내버리는 것은 건강관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계획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더 나은 생명존중의 많은 해결책들은 낙태 때문에 평생 후회하게 될 여성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해결책들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Right to Life Kern County의 전무이사인 Marylee Shrider는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낙태만 선택하도록 만드는 SB245 발의안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들은 항상 낙태를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게끔 법을 만들어왔다. 시민들 세금으로 무료낙태비용을 충당하고자 시민들에게 더 높은 보험료(higher premiums to cover the cost of free abortions)를 지불하라고 (공산당처럼) 강요하기 전에 저비용 산전 관리 및 산후 서비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건강 옵션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낙태뿐 아니라 다른 더 좋은 건강한 선택들과 도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여성들이 스스로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과 중요한 기도제목들은 Tvnex.org에 가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 의원들이 co-author로 1월 22일자로 발의하여 현재 코비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33rd District을 담당하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맡고 있음. 지난 수년간 그녀는 동



SB 245 발의자 Lena Gonzalez(민주당) 상원의원

성애자 상원의원들과 함께 친동성애/트랜스젠더, 문란한 성교육 등 반기독교적인 법안들을 공동발의, 통과시키는데 앞장서온 정치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SB 245 발의안의 문제점 3가지

1.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존엄성"과 반대되는 "낙태 문화화" 가속

이 발의안은 무분별한 낙태를 공립학교에 다니는 어린 학생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낙태를 할 때 최소한 내야하는 보험료 중 co-pay나 deductible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하는 "cost share" 정책으로 Planned Parenthood 같은 낙태기업에 갔을 때 돈을 내면서 질문도 하며 잠시 낙태에 대해 다시 생각할 기회까지 잃어버리게 합니다. 한마디로, 어린자녀들에게는 정부가 태아생명을 죽이는 것에 돈까지 대줄 만큼 상급을 받는 것과 같은 생각을 불어넣어주기에 낙태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3.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을 "선하고 정상"이라고 하는 사악한 발의안

엄연히 성경이 "죄"라고 하신 것을 "선"이고 "정상"으로 취급하여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형성시키는 정책입니다. 이런 것이 법이 된다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반기독교 교육에 세뇌가 되어 졸업한 아이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

캘리포니아는 지난 4년 동안 '미연방보험법(개인보험에서 의무적인 낙태비용 빼라는 법)'을 무시한 채 모든 개인 건강보험 계획에 낙태에 대한 보험적용이 포함시킬 것을 계속 정책화 해왔었습니다.

지난 12월 Pro-Life인 트럼프로 인해 Pro-Life정책으로 돌아갔던 미보건 사회복지부(HHS)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방침을 변경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로부터 2억 달러를 보류할 것이니, 시민들의 개인보험에서 자동적으로 낙태비용 세금으로 내게하는 것을 정지하라고 강력히 경고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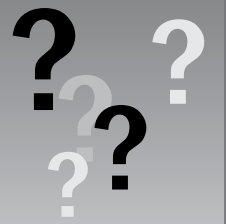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연방정부 부서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Lena Gonzalez 상원의원은 오히려 모든 민간 보험정책이 무료로 낙태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SB-245이라는 발의안을 12월에 도입하고 1월에 제출하여 2월 현재 공청회를 계속 중입니다.

SB 245-Health care coverage: abortion services: cost sharing(2021-2022) 공동 발의자들: (이 법안은 "Abortion Accessibility Act-낙태 접근용이 법안"으로도 불림)

Lena Gonzalez(민주당 상원)가 기획하고 캘리포니아 교육위원회 의원이며 SB 673(학부모 권리보호)을 반대했던 Connie Leyva(민주당 여성상원)와 Kamlager(민주당 하원)가 공동 기획했으며 그 외 Bauer-Kahan(A), Boerner Horvath(A), Burke(A), Calderon(A), Cervantes(A), Durazo(S), Friedman(A), Cristina Garcia(A)이 발의안 공동제안자들의 이름들입니다. 발의자 외 9명의 민주당 소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제 가족 식구 중에는 말기암으로 투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졌지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에나하임에서 민 집사

A: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상담전화 중에 오늘 제복처럼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질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제 목회 43년 경험으로 보면 말기가 찾아와 죽음이 가까이 오면 성도들도 대부분 처음에는 당황하나 얼마안가 신앙심으로 평정을 되찾고 죽음도 평온하게 맞이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죽은 후에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먼저 잘못된 주장들을 소개합니다. 1)영호와의 증인은 멸절설을 말하며 그 영혼도 몸과 함께 죽은 채 흙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2)안식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은 신 불신 간에 최후의 심판 때까지 무의식 수면 각박상태로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3)로마가톨릭교회는 연옥을 주장하는데 대단히 위대한 성자는 죽어서 바로 천국에 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하지 않아 정화를 받을 필요가 있어 천국과 지옥중간의 중간지점인 연옥(purgatory)에 가서 불로 일정기간 고통을 당한 뒤에 천국간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기도하고 헌금하면 연옥의 기간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4)또 어떤 현대 신학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가 경건한 사람이든 악인이든 간에 중간상태 즉 구약성경이 스올(sheol)이라고 하고 신약에 하데스(hades)라는 상태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 지하세계는 지옥과 같이 벌을 받거나 천당처럼 상을 받는 곳이 아닌 격리된 장소라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모여 일반적 부활의 때까지 머물러 있는 장소, 대기소라고 말합니다. 무섭고 암울한 거처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죽으면 영혼은 곧 천국으로

저는 개혁장로회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칩니다. 조직신학자 루이스 벨름의 말대로 앞의 이런 이론들은 성경의 가르침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즉시 영광으로 들어가고 악인은 즉시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내려간다는 성경 말씀과 명백히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은 신자의 영혼과 불신자의 영혼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불신자의 영혼은 사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그 영혼이 음부 즉 지옥인 하데스로 가서 그 불신자의 영혼이 정신적 영적 지옥의 심판과 고통을 예수 재림 때까지 당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에 불신자의 몸이 부활해 계시록 20:13-14절처럼 영혼과 몸이 함께 불못의 지옥(헬라어 게헨나)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죽으면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육신은 죽어 땅에 파묻히나 그 영혼은 천사의 손에 이끌려 즉시 지구를 벗어나 계시록 4-5장의 천국에 도달하게 됩니다. 죽은 30분-한 시간도 채 못되어 천국에서 눈을 뜹니다. 새로운 어마어마한 세계가 열리는데 주님과 천군천사와 앞서간 성도들이 팔을 벌리고 우리를 환영합니다. 이 천국을 나원(눅23:43)이라고도 하브라함의 품(눅16:23)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도착하는 천국을 오늘 히브리기자는 1)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시온성이요 하늘의 성(히11:16)입니다. 2)하나님과 천만천사들이 있는 곳 이요 3)승리한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4)앞서간 성도들 즉 의인들의 영혼이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5)천국에서 천국(천년왕국)의 삶을 누리며 첫째 부활의 영생을 누립니다(계20:4-6,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예수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별이 끝나면 죽으며 죽으면 곧 30분도 안되어 빛나고 영화로운 천국에서 눈을 뜹니다.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은 엄청난 신비의 세계가 기다립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였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빌1:23).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2)397-6754~5
군포시 금성동 870-10호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3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인교회

담임목사: 윤진석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교우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3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주일6부: 오후 6:30(매일)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세백1부예배: 오전 5:00
세백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8-99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8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토요일은 생략)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영우동 416-(404-270)

승정교회

담임목사: 최영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세백: (02)389-2235
(110-2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동 137 번지

시온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세백기도회: 오전 5:00(매일-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리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세백: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7길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세백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백석고분로 17길 29(잠실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www.eshinchong.org

안암교회

담임목사: 김병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82)2-926-4508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시길 50-1
www.anamjoo.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세백기도회(매일): 오전 5: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7-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암로 415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세백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방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5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02)422-527-1005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교회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세백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흥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하는 바울의 마음

사람은 오래전에 떠나온 고향을 많이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고향은 마음속에 그리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때로는 그곳에서 온 음식으로 그리움 고향을 달래기도 합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떠나온 고향에 대한 향수는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주변의 서구 선교사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집에서 부쳐온 소포를 받고 그 안에서 그리웠던 치즈를 발견하면 모두를 불러서 함께 왁스로 봉해진 치즈를 열 때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미국 출신이라고 그런 자리에 어울릴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봉한 것을 열고 나면 냄새가 지독하며 그들의 썩은 냄새와 느끼한 맛에

반응이 "I feel like at home!"(집에 온 것 같다)라고 말하지 않던 미주 1.5세인 저희 부부는 그 냄새에 완전 적응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분위기를 맞춰 주기 위해서 나눠주는 치즈 조각과 크래커를 기쁘게 받아 먹습니다. 때로는 인도네시아 명절인 "이둘튀트리"가 되면 현지인들과 둘러앉아 그들의 냄새나는 토속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반면에 추석 때가 되면 한국 선교사들과 송편과 떡국을 나눠먹습니다. 그러다가 감사절 때가 되면 칠면조를 현지에서 찾아 서구 선교사들과 다 함께 모여 감사절 만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저희에게는 아직 치즈나 고기보다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나 고향의 맛을 더 많이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에 선교팀이 오면서 선교본

부에서 제가 있던 지역의 한국인 선교사님들에게 조그만 고향의 맛 선물들을 다 돌렸습니다. 그 안에는 김, 미역, 고추장, 된장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오는 것만은 빠져 있었습니다. 단순 실수였거나 하고 넘어가기에는 한국음식이 그리운 지역에서 무척 아쉬웠습니다.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 한국본부와 전화할 일이 있을 때 기억이 나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선교사님들에게 보내주는 고향 선물에 우리 것은 없나요? 그랬더니 본부에서 반색하며 물어오는 말, "미주 출신인 선교사님도 그런 것 드시나요? 우리 부부는 어릴 때 한국을 떠나기 전에 빵과 치즈만 먹는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그 말 막고 말았습시다. 그보다 토속 한국인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모습이 아쉽기도 했습

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다양한 문화 속에 섞여서 내 고유문화가 상실되었고 혼합된 문화가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온 지가 어연 반세기가 되어옵니다. 선교지에서 이 것도 아니고 저 것도 아닌 삶을 살아오지만 어떤 문화 배경이건 그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는 장점을 터득하게 하신 것도 기쁘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헬라문명의 영향을 받았지만 유대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삶이 아니라 모든 문화를 포용하는 적극적인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된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사람처럼 된 것은 복음에 참여

하여 많은 영혼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살아오면서 세 가지 문화를 소유했고, 세 개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 미주 한인교회의 다음 세대로 이런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언어 구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민자들의 장점이 우리 자녀세대에 나타나서 교회공동체가 많은 영혼들을 얻는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gypack@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불법낙태로 여성이 위험? 안전한 낙태는 없어"

불법 낙태로 인해 여성이 위험하다는 낙태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영상이 나왔다. 최근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유튜브 채널 '포리베'(For Little Baby)는 '여성은 불법 낙태로 사망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포리베는 미국에서 생명운동 캠페인을 하는 유튜브 채널 '리브 액션'(live Action)의 영상을 번역했다.



영상에서 의학박사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캐시 얼트만은 "안전한 낙태는 없다"며 "낙태가 불법이든 합법이든 여성에게 오랜 기간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준다. 자살 충동, 불안, 유산, 장기손상 등의 후유증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얼트만 박사는 "저는 한때 불법 낙태의 위험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가 합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라며 "낙태 시술을 집도했고 미국의 낙태 지원단체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에서 2년간 의료담당자이기도 했다. 저 또한 낙태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날 낙태 합법화가 여성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거짓임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1940-70년대 낙태로 인한 사망률이 현저히 줄었던 이유는 약물 발전으로 항생제 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낙태권 행동연맹 NARAL의 창립자인 래리 레이더와 버나드 네이션슨의 선동 때문에 낙태에 대한 잘못된 주장이 알려졌다고 밝혔다. 네이션슨은 얼트만 박사처럼 생명운동을 하는 프로라이프 진영으로 전향했다.

그러면서 "1973년 '로 대 웨이드'의 낙태 합법화 판결 후 미국의 모성 사망률은 낙태법이 엄격한 다른 나라보다 더 높다"며 "미국의 경우 10만명 중 14명의 모성이 사망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가 불법인 폴란드의 경우 10만명 중 3명이 사망한다"고 덧붙였다.

얼트만 박사는 "73년 후 미국의 낙태율은 급상승했고 매년 6000여만명의 태아가 합법적 죽임을 당한다"며 "낙태 합법화는 낙태를 안전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태아가 죽고 여성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가 진정으로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낙태를 불법으로 만들면 된다"고 촉구했다.

성추행 라비 재커라이어스 책 절판키로

미국의 대형 기독교 출판사가 기독교변증가 라비 재커라이어스(1946-2020)의 책을 모두 절판하기로 했다. 라비 재커라이어스 국제사역센터(RZIM)가 성추행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를 최근 공개하면서 재커라이어스의 성추행 사실이 사후 명백히 밝혀졌다는 이유에서다.



크리스체너티투데이(CT)는 기독교 출판사 존더반과 토마스넬슨을 소유한 출판그룹 하퍼콜린스가 200만부 이상 판매된 재커라이어스의 책 16권을 절판키로 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케이스 프랜시스 해럴 하퍼콜린스 부사장은 "재커라이어스의 성폭력 사실이 불거진 지난해 9월부터 그와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했

다"고 밝혔다. 하퍼콜린스 자회사 토마스넬슨은 재커라이어스가 참여한 책 '지저스 포 유' 출간 계획을 무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해럴 부사장은 "RZIM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는 그의 모든 출판물을 절판할 것이다. 성추행 피해자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예수는 역사다'를 편역 베스트셀러 작가 리스트로벨은 존더반과 협력해 재커라이어스가 등장하는 책 '더 케이스 포 페이스'의 인쇄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 책에는 20여년 전 스트로벨이 재커라이어스를 인터뷰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책은 재커라이어스를 '마음이 온화하고 면도날 같은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변증가로 기록했다. 재커라이어스의 대표적 저작물은 그가 세운 RZIM 홈페이지의 권장도서 목록에서도 흔적을 감췄다. RZIM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가을까지 '인간이 신 없이 살 수 있을까' 등 재커라이어스의 대표작이 소개돼 있었지만 성추행 의혹 제기 뒤 삭제됐다.

공화당원 46%, 트럼프 신당창당 시 입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하면 공화당원의 46%가 신당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USA투데이와 서퍼대가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원의 46%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창당을 결정하면 공화당을 버리고 '트럼프당'에 가겠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27%는 공화당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답했고, 나머지는 '미결정'이었다. 응답자들은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강한 반감을 보였다. 4명 중 3명꼴인 73%는 바이든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선출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지난달 의회 난입 사태의 책임을 물어 추진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인해 그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졌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지지도가 높아졌다는 답변은 42%였다. 응답자의 54%는 탄핵 심판이 지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다시 출마하기를 원한다는 답변은 59%로, 원하지 않는다는 비율(29%)보다 2배로 많았다. 출마하면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76%였다.

답변자의 절반은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 했다. 당이 트럼프에 대한 충성도를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19%에 그쳤다.

조사는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은 공화당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15-19일 진행됐다.

미 코로나19 사망 50만명 육박...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이 현지시간으로 21일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50만명에 육박한 데 대해 "끔찍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연말까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미 국민이 내년까지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외신에 따르면 파우치 소장은 이날 CNN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아직 코로나19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다"며 50만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나온 데 대해 "끔찍하다. 그것은 역사적"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1918년 유행성 독감 이후 100년 동안 이번과 가까운 사망자를 낸 것을 본 적이 없다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이라며 "이것은 파괴적인 팬데믹"이라고 말했다. 파우치 소장은 미국의 일일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지난달 정점을 찍은 후 급감하고 있다면서도 정상적인 생활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가을과 겨울로 접어들면서 연말까지 정상 상태에 근접할 것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미국인들이 내년에도 마스크를 착용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지역사회의 감염 수준과 잠재적인 바이러스 변이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美·英·佛 올해 말 백신접종 완료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올해 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과 일본의 접종 완료 시점은 이보다 늦어 내년 중반으로 예상된다. 백신 공급 부족 등으로 접종 속도가 지연되는 가운데 독일과 러시아는 서로 다른 종류의 백신을 섞어서 접종하는 '결합 접종'을 추진하고 나섰다.



21일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코로나19 백신: 지연 예상'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의 백신 접종 완료 시기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은 다음 달까지 노인과 저지질환자, 일선 의료진 등 1차 접종 대상군에 대한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나타났다. EIU는 이에 따라 올해 중반부터 사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제가 살아나고, 연말이면 백신 접종에 의한 집단면역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내년 중반이 돼야 집단면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까지 인구 70% 이상에 대한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집단면역을 이룰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과는 대비되는 결과다.

일본과 호주, 러시아 등도 한국과 함께 내년 중반이 돼야 집단면역이 이뤄질 것으로 EIU는 내다봤다. 중국과 인도는 방대한 인구를 보유한 탓에 내년 후반까지도 접종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EIU는 전했다. 중진국 대다수도 내년 말까지는 광범위한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저개발국들의 전망은 밝지 않다.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과 동남아 일부 국가, 북한 등은 접종 완료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다. EIU는 이들 국가가 2023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집단면역을 달성할 것으로 분석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결합 접종' 실험을 시작했다. 결합 접종의 주 대상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다. 예방률이 95%에 달하는 화이자·모더나 백신과 달리 AZ백신은 초기 발표에서 70.4%의 다소 낮은 효과를 나타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효과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감염됐을 경우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이유를 들어 종류를 불문하고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엘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은 지난 20일 화상으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AZ 백신을 먼저 접종받고 난 뒤 나중에 다른 백신을 추가로 접종받는 것은 아무 문제 없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AZ 백신과 자체 개발한 스푸트니크 V 백신을 1회씩 접종하는 시험을 시작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백신 개발을 주도한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는 "AZ 백신 2차 접종용으로 스푸트니크V 백신을 이용한다면 두 번째 접종을 위해 3개월이나 기다릴 필요가 없다"면서 "이미 이런 방식의 임상시험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기독교 토크쇼 창시자 러시 림보 별세

미국의 기독교 보수주의자 러시 림보가 17일 70세의 나이로 별세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림보의 아내 캐서린 로저스는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토크쇼에 나와 "림보는 2020년 초부터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합병증으로 숨졌다"고 전했다.



림보는 1980년대 이후 미국의 기독교 라디오 토크쇼 분야를 개척했고, 보수 진영을 대표해온 인물이다. 1988년 자신의 이름을 딴 라디오 프로그램 '러시 림보 쇼'가 전국적으로 방송되기 시작하면서 그의 열렬한 추종자들이 생겼다. 그는 방송을 통해 손 해니터, 빌 오라일리, 글렌 벡 등 우익 논객들의 탄생도 도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림보를 높이 평가하며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작년 2월 의회 국정연설 때 그에게 미국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훈장인 '자유 메달'을 수여하기도 했다.

복음주의 지도자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폐암과 싸움 끝에 세상을 떠난 러시 림보의 유가족들을 위해 진심으로 애도하고 기도한다"면서 "그는 수년간 보수적인 이성의 목소리였고 매우 그리울 것"이라고 남겼다.

보수단체인 '패밀리 리더'(Family Leader) 회장이자 아이오와 내에서 영향력을 지닌 인물인 밥 밴더 플라츠는 CP에 보낸 성명서를 통해 "림보는 라디오 토크쇼와 자유 발언의 선구자"라고 말했다. 2016년 테드 크루즈의 대통령 선거 캠페인(Ted Cruz for President) 전국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그는 "림보는 소셜미디어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주류 언론사들의 게이트키퍼에 의존하지 않는 대안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고 했다.

이어 "림보가 대중문화적 서사를 뛰어넘는 아이디어, 의견, 토론에 굶주린 청중들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기독교 라디오 토크쇼의 진행자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그의 사망 소식에 성명을 발표하고 애도를 표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림보는 나의 대통령 재임기간 내내 친구가 되어준 인물로, 솔직하고 때로 논쟁의 여지가 있었다"면서도 "수백만 미국인들을 위한 목소리로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매일 열정적으로 다가왔다"고 회상했다.

이어 "말년에 청력을 잃고 암투병을 하는 중에도, 친구들과 가족들의 지지, 스포츠와 락에 대한 사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버텼다. 러시 림보는 불굴의 정신이었고, 그가 그리울 것"이라고 했다.

림보는 1988년 56개의 라디오 방송국과 더불어 전국적인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다. 32년이 지난 현재 이 쇼는 600개 이상의 방송국에서 최대 2700만 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는 라디오 토크쇼 중 하나다.

지난 2020년 초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사실을 밝힌 림보는, 투병 중 하나님과의 관계가 병에 대처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반복해서 전했다. 지난 7월에는 자신의 상태를 청취자들에게 알리며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있다. 기도가 효과가 있다고 믿는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15. 염세우(1873-1923)

염세우(嚴世雨)는 1873년 1월 1일에 한국 강원도 김화군 군내면 천동음의 만석군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감리교인이었다. 결혼한 후 그는 혼자서 하와이 노동 이주자로서 1904년 11월 17일에 일본 고베에서 시베리아 기선을 타고 그달 29일에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을 때 20세로 기록되어 있다. 그가 김화 지역의 수십만 평의 토지와 임야 등 가산을 정리하여 망명하였다고도 한다.



나성 한인장로교회
(240 N. Bunker Hill St.)

나성한인장로교회 영수

염세우는 하와이에서 나성으로 이주하였고, 1907년에 백경태, 이관식, 조태윤, 한형식, 이종찬과 더불어 나성한인교회 교인이었다. 그는 1913년에 나성의 다운타운인 노스 벙커힐 에비뉴 240번지에서 거주했는데 본 건물은 1920년 초에 나성한인장로교회가 된다. 그해 8월에 신한민보의 유희 구락부가 낸 유희 문제에 염세우가 다른 17명과 함께 당선되어 캘리포니아 유람기나 산술격몽 관칙을 상품으로 받았다. 이듬해 염세우가 가입한 권업동맹단 단원은 33명으로 자본금은 33,000달러였으므로 그의 몫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2년 후 1916년 5월에 장부병으로 다년간 고생하던 염세우는 클너리버튼 병원에서 수술한 후 퇴원하여 박재형의 집에서 휴식하였으나 매우 고생하였다. 그런데

나성 다운타운의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 512번지에서 거주하던 1918년 3월 11일에 염세우가 김영희와 한봉석과 동업하여 나성 중국촌에서 양음식점을 열었다. 본래 영업하던 음식점이었으므로 낯익은 손님이 많고 기구가 갖춰져 날로 잘 되었다.

그해 9월 12일에 45세였던 그(Joe Yum)가 제출한 제1차 세계대전 징병 서류에서 중간 체구였음을 엿본다. 당시 거주 산호제에서 동업으로 상업에 종사하였고, 이곳 사우스 1가 182번지에 거주하였으며, 가장 가까운 친척에 14년 전에 마지막으로 본 아내를

적었을 때 문물을 글썽였을 것 같다. 나성한인교회 순행목사였던 민찬호가 1919년에 하와이로 전임한 후 홍치범이 순회목사가 되었을 때 나성에 거주하는 100여 명의 풍포 중 교회에 출석한 장년 교우는 40여 명이었다.

나성한인교회 영수로 2년간 사역 후 뉴욕행, 뉴욕한인교회 출석 공립협회, 지방회 가입해 나라 사랑 활발... 독립운동가로 포상돼

염세우는 노진국과 박일우와 함께 본 교회 영수로 재직했으나 구체적인 사



염세우의 날인
(제1차 세계대전 징집서류)

역을 찾지 못한 채였다. 영수 외에도 정인영, 정지영, 염달욱 조성환, 주영한 그리고 전진이 집사였고, 김이선, 박순애 그리고 임화연이 권찰이었다. 그해 11월 25일에 신한민보는 신실한 교회직원과 예배당이 편리하고 설비가 잘 되어있어 부흥의 희망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가 영수로 있었을 때의 예배당은 두 곳으로 1910년대의 예배당은 올버니 코트 2번지였고, 1920년대 초의 예배당은 노스 벙커힐 스트리트 240번지였다.

염세우의 영수직은 뉴욕으로 가던 때까지 계속되었다면 길어도 2년이 되지 않는다. 그가 사무원으로 활동하

면서 1921년에 거주했던 나성 다운타운의 사우스 플라우어 스트리트 1053번지가 나성에서의 마지막 주소였다.



메디슨 에비뉴 감리교회

염세우의 나라 사랑은 고향 사람이자 임시정부 군무과장이었던 염운동의 영향보다 염운동의 사위인 독립운동가 박용철의 형인 박윤만의 영향이 더 컸던 것 같다. 자기보다 8살 아래였지만 그는 고향 인근의 철원에서 태어났고, 그보다 1년 뒤인 1905년에 도미하였는데 나라 사랑에는 함께 했다.

염세우의 나라 사랑은 공립협회 가입이었고, 1917년에 국민회 나성지방회 회장 이영수가 사임함에 따라 그해 3월 9일에 그의 뒤를 이어 선임되면서 그의 나라 사랑은 전개되었다. 이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밀입국한 김성원이 나성 감옥에 갇혔다가 멕시코로 되돌아가고, 흥안방이 노동소를 개설하였고, 박재영이 여관을 신선했으며 최삼목은 양해수리점을 열었음을 보고했다. 그런데 그해 5월 11일의 통상회에서 이영수가 다시 회장이 되어 염세우의 회장직 기간은 2개월이었다.

삼일운동이 있었던 1919년에 염세우의 나라 사랑이 활발했다. 나성지방

회, 만세삼창, 이종찬, 임시정부 헌법 낭독, 독창, 축전 소개와 중앙총회장 윤병구 목사의 연설 초본낭독, 연설, 애국가 합창으로 오전 12시 10분에 경축회를 마쳤다. 두 번째 모임으로 조성환이 개최하면서 애국가 합창, 연설, 독창, 연설, 독창, 4인 연설, 기도도 하였고 6시에 폐회했고, 이후 만찬회가 있었다. 이날 염세우는 임시정부 헌법 낭독, 연설 그리고 폐회기도 등 세 번의 순서를 맡았다.

염세우는 1916년 12월과 1917년 12월에 국민의무금으로 5달러를 내고, 1919년 5월에는 독립의연금으로 15달러를 냈으므로 나라 사랑을 현실화했다.

뉴욕한인교회

뉴욕에는 한인 유학생과 이주 한인 등 100여 명의 한인이 거주하였다. 뉴욕한인교회는 1921년 4월 18일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제3회 삼일절 기념식이 있었던 1922년 3월 1일 저녁에 삼일절 대회 평가모임에서 미국 육군 김벌랜드 준장의 부인이자 뉴욕 친한회 회장이었던 김벌랜드 여사의 제의로 함께 참석한 탈프 W. 삭크만 목사가 섬기던 메디슨 23가의 메디슨 에비뉴 감리교회를 사용해도 좋다는 제안으로 설립되었다고 한다. 당시 목사는 임종순이었고, 60여 명의 한인이 출석하였다. 염세우는 1921년 가을이나 1922년 봄에 뉴욕으로 이동했으므로 뉴욕한인교회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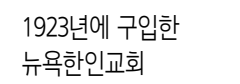
립 멤버가 아닌가 싶다. 염세우는 1922년에 뉴욕 지방정부 소관 길보아 수도건축회사의 대표 노동주임으로 활동했다. 그는 그해 10월 19일에 신한민보에 다음과 같이 한인 노동자 모임을 광고했다. “장애를 위하여 이상을 가지고 노동하는 이는 길보아로 오시오. 매일 24시간씩이라도 할 일이 있고 2년 동안이나 할 일이 없습니다. 2년을 지난 후에는 메스 체스에 더 크고 좋은 일이 있습니다. 참 좋은 기회입니다. 침상과 금침과 찬물 더운물과 목욕실과 전기 등과 구비하게 차려주고 매일 개인에게 다섯 10전씩 회사에서 받습니다. 식사는 자유로 하며 형제들의 모든 요구는 본인이 편리하도록 수용하여 드리겠습니다. 공전은 각각 일의 종류와 일군의 장기를 따라 고하가 있습니다. 공전은 시세를 따라 가감이 있습니다. 지금 주는 공전은 매시에 35전으로 그 이상이옵니다... 내년 2월부터 여러분 오실 계약을 합니다. 본 회사에서 각인의 차비를 미리 주고 오신 후 매

삭 월급에서 조금씩 제하기로 하나이다. 오실 이가 100명 이상의 청원 편지를 하면 본인이 명년 2월에 여러분을 모시러 가주러 나가겠습니다. 일은 보통 삼일절과 후 크랙이질 여러 종류의 상일이다. 더 알아보기를 원하시면 본인에게 편지로 알아보시오.”

뉴욕한인교회는 5인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1923년 초에 미국 감리교단의 뉴욕시 선교/교회 확장 위원회의 5,000달러의 재정후원으로 맨해튼 시가의 웨스트 21가 459번지의 건물을 구매하였다. 본 건물은 지하실이 있는 4층 벽돌 건물로 대지는 17.5x100피트였다. 그해 4월 15일에 임종순 목사의 인도로 최초로 주일예배를 이 예배당에서 드렸을 때 염세우도 동참했을 것이나 교회생활은 소극적이었던 것 같다.

교회 이름은 Korean Church and Institute였다. 한인들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창립의 이념에 따라 본 예배당에는 25명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며,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치는 야학도 있었다. 1924년 뉴욕 감리교신교부 연합에는 교인수는 작지만 교인들의 사기는 왕성해서 건물을 유지하는데 소모되는 부담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갚았으며 빛은 7,000달리었다.

염세우의 나라 사랑은 국민회 뉴욕지방회에서도 여전했다. 1923년 1월 5일에 통상회에서 그가



1923년에 구입한 뉴욕한인교회

총무로 선출되었을 때 회장에 천세현, 부회장에 이원준, 서기에 이재희, 재무에 정원도, 법무에 서기 초, 학부에 조병욱, 실업에 정인수, 구제원에 김윤옥 그리고 대의원에 박립대였다. 그달 8일에 본 지방회는 총무는 학부와 협동하여 강연회를 자주 열어 회원의 지식 교환을 실행하기로 하였으니 바빴을 것이다. 그해 3월 1일 오후 8시 30분에 뉴욕지방회는 삼일절 경축회를 거행하였는데 12시가 되어서야 마쳤는데 그는 순서를 맡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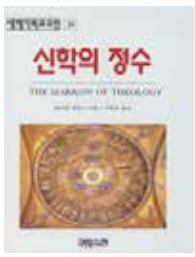
염세우는 1923년 8월 23일에 뉴욕에서 향년 50세에 소천하였다. 뉴욕이주 2년이었고 도미한 지 20년이 되던 해다. 이튿날 그(Say Laren Yum)는 뉴욕 퀸즈 메스패스 소재 마운트 올리벳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왼쪽에 월계수가 그려진 그의 묘비에 “한국인 럼세우지묘 미국 5년 8월 23일 영면”이 새겨져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에 건국포장을 수여했으나 훈장 미전수 독립운동가 명단에 있다. 뉴욕한인교회는 2020년 2월 29일에 그와 애국지사 황기환 선생을 위한 추모예배를 드렸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교회: 오후 2:00 한미교회: 오후 7:30 한미교회: 오후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 오전 9:30, 11:30 Tel: (714)446-6200, www.gracemc.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후 1:20 청년회: 오후 2:00 영인회(참사-KDC, 링컨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310)719-2244, www.dkpc.com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4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 오후 7:30 Tel: (213)381-2202, www.m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금요일예배: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 90717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회: 오후 2:00 영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어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lhin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235-78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737-3009, Cell: (213)1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가족원 원장: 박은송 목사 (LA)복음화전교회 협동목사 상담사: (월-금) 오전 9:45~10:30 사역: 1. 영성사역 2. 가정사역 3. 청년사역 4. 해외사역 http://www.elpis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토), 6:00(토) 은혜세계기도원: 365일 24시간 온오프 Tel: (714)446-6200, www.gracemc.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한미)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언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ccj.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530-4040(CW), www.cornerstonech.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토 비 예 배 :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본당) 수요일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새벽예배: 오후 7:00(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c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핼(PIM)선교회, 교회 담임목사: 이훈우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한미교회: 오후 1:00 교육부: 오전 11:00 Tel: 213 924-3340, pimission1004@gmail.com 2533 Honolulu Ave # 4 Montrose, CA 91020	하늘사랑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영성'이 임아지배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34)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의 “신학의 정수(A Marrow of Theology)” (5)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8)은혜의 언약신학
에임스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적용’이라는 제목이 붙은 24장에서 언약신학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진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구속언약을 실현시키는 수단이 은혜언약인데, 성경은 이것을 ‘새언약’으로 부른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적용’은 언약에 따라 이루어진다. 새언약이 옛언약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한 다음 그는 “은혜언약의 본질은 마지막 날에 신자들이 영광 속에 들어가고 은혜언약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다양한 역사적 시대를 거치며 계속된다”고 말한다.

통한 연합, 칭의, 양자 됨, 성화, 영화의 순서로 진행되는 구원의 서정 앞 단계에 포함시켜 살펴보고 있다(1권 26-30권). 이것은 본질상 은혜언약의 적용을 고려한 에임스의 신학의 골자라고 할 수 있다.

다(엡1:17-9). 부르심에 대한 영점으로 인해 부르심은 회심이라고 불린다(행26:20). 이 회개는 신앙과 동일한 원인과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회개는 신앙보다 먼저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서술한다.

는 것이다(고후5:17). 이런 성질들의 변화는 성화라는 정당하고 영예로운 선이든지 영화라는 완전하고 승화된 선과 연관된다. 여기서 성화는 신앙과 회개와 관련되는 인간 안에서의 변화와는 구분된다. 왜냐하면 신앙은 성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를 의미하고, 회개는 기질(성벽)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목적과 의도에 있어서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성화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엡4:24)의 성결 혹은 하나님의 율법예의 일치(약1:25; 롬6:4; 베히1:4)를 위한 것이다.

구속의 적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연합에서 나오는 유익에 참여 은혜언약의 순차적 시행은 ‘더 완전한 상태로’ ‘더 명확한 상태로’

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다. “청교도 신학에 있어서 은혜언약(The Covenant of Grace in Puritan Theology)”을 쓴 존 폰 로어(John von Rohr)가 지적하는 것처럼 “에임스에게 있어서, 언약조건 성취에 대한 약속은 그 자체로 언약의 약속이었다.” 결론적으로 은혜가 모든 것을 행하고 신자는 약속을 주시고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서 그는 택하심 받은 자의 영원한 삶의 국면을 구속사의 시간 및 역사적 진행과정에 그대로 일치시켰다. 따라서 구원의 서정의 논리적 요소들은 구속사를 통한 언약의 시행의 연대적 순서와 중복되었다. 구속사의 각 시기는 신자들의 조건 또는 상태와 상응적인 관계로 통합되어 있다(1권 30-39장).

는(데13:9), 이러한 의는 하나님의 의라고 불린다. 칭의하는 신앙은 본성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자비의 특별하고 견고한 확신(persuasion)을 가져오며, 이런 확신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tion), 축복, 영생, 영화, 우리 주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불멸의 상속이라고 불린다(엡1:3; 요3:36; 베히1:3). 이 모든 것은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이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엡3:17). 완전한 영화는 영혼과 몸에서 모든 불완전한 것들을 제거하고 전적인 완전성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9)확신의 한 부분으로서의 예정교리
에임스의 책의 전반부에서(25장에서 비로서 예정교리를 다룸) 선택과 유기에 대한 교리가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 교리는 앞부분의 하나님의 작정 부분(1권 7장)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에임스가 예정교리를 확신교리의 한 부분으로 삼는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이다. 그는 확신의 은혜(예정)를 ‘부르심을

다(빌3:9).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인간과 그리스도와의 영적 인 관계로, 이를 통하여 인간들은 모든 축복들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된다(요일5:12).

다(요1:12). 이런 판단은 칭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양자됨은 신앙으로부터 유래하고, 칭의는 신앙과 양자 됨 사이에 온다. 양자됨은 본성상 칭의 안에서 발견되는 화해를 필요로 하며 이를 전제한다. 이 이들의 지위와 함께 상속자의 신분도 주어진다(롬8:15-16, 23; 갈4:5-7).

11)구원의 순서의 연관성
에임스는 선택, 구속, 부르심, 칭의, 양자, 성화, 영화를 각 시대를 은혜언약의 시행기관과 사건들을 통해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를 설명한다(1권 38, 14-35). 여기서 구원역사의 시간적인 국면과 영원한 국면이 함께 결합되어진다. 구원의 서정(ordosalutis)의 논리적이고 실존적인 요소들이 시간순서(ordotemporum)의 연대별 시기와 통합된다. (13면으로 계속)



변명혜 박사 (아주사서시립대학교 교수)

친구

우리 모두에게는 친구가 있다. 어린 시절 함께 놀던 소꿉친구, 학교에서 만난 친구, 그리고 성장한 이후 직장, 교회 등 같은 환경을 통해 만난 친구들이 있다. 친구의 순 우리말인 “벗”이나 “동무”는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옛 단어다. 특히 “동무”라는 단어는 북한에서 동지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바람에 이복을 주제로 한 드라마에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이 되었다. 길동무, 어깨동무 등 아름다운 뜻을 지닌 단어도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친구는 사소한 일상 뿐 아니라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친구는 뜨거운 사막을 걸어 갈 때 짙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주는 나무 같다. 자주 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친구가 살고 있으면 좋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괜찮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하지만 친구에게는 그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 몇 년에 한 번 얼굴을 볼 수 있어도 친구는 친구다. 문득 보고 싶고, 안부가 궁금해서 일년에 한 번 소식을 나눈다 해도 친구라면 세월의 간격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인간관계는 다양하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 얼굴이나 이름 정도를 아는 사람, 일상의 일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또한 세상에는 나에게 호감을 갖는 사람,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골고루 있다.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상관 없이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몇 년 전에 어느 기독교 TV방송국에서 초청을 해서 두 차례에 걸쳐 비디오를 녹화했다. 최근 유튜브에서 우연히 그 비디오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 “싫어요”를 한 사람이 있었다.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싫다고 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두 비디오에 똑같이 싫다고 한 사람이 한 명씩 있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열심히 “싫어요”를 누른 것 같았다. 누가 싫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것도 아니고 크게 상처받은 일은 아니어서 “와, 내가 정말 싫은가 보네” 하고 지나쳤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의 반응에 늘 신경을 쓰고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싸늘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피곤한 세상에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다. 친구는 언제나 내 편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 먼저 친구는 서로를 잘 알고 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등을 알고 이해한다. 또한 친구는 서로를 기뻐한다. 만나면 반갑고, 오랜 기간 못 보면 궁금하고 보고 싶은 사이가 친구다. 무엇보다 친구는 상대방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덮어주고 사랑한다. 형제, 자매에게도 나누지 못할 마음의 비밀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친구다. “영혼의 친구”라는 말이 있다. 믿음 안에 서로를 세워주는 친구를 말한다. 일생을 살면서 영혼의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정말 행복한 일이다.

(13면으로 계속)

<h2>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h2>				<h3>뉴욕갯세마네교회</h3>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일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p> <p>Tel. (516)520-2004, www.nygetsema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h3>뉴욕목양장로교회</h3> <p>담임목사: 허신국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수요침례: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h3>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h3>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주일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회: 오후 08:45 금요일기도회: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화,토)</p> <p>Tel. (718)265-2584, www.i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h3>뉴욕새벽별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수요침례: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Tel. (917)733-7387, chungkita@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h3>뉴욕새생명장로교회</h3> <p>담임목사: 허운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637-1470 45-50 162 St., #2F1, Flushing, NY 11358</p>	<h3>뉴욕새사람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양 예배: 오전 10:45 수요 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3>뉴욕센트럴교회</h3> <p>담임목사: 김재철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www.pcpc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3>뉴저지성도교회</h3> <p>담임목사: 허성희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h3>리빙스톤교회</h3>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수요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침례: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h3>베이스айд 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식 칭의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 저녁예배: 오후 8:00 수요 저녁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교인특별헌액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p> <p>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p>	<h3>사랑의동산교회</h3> <p>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 오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p> <p>Tel. 516)433-0862 8 Duffly Ave., Hicksville, NY, 11801</p>	<h3>어린양 개혁 교회</h3> <p>담임목사: 유승래 EM 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p> <p>Jesus said "Feed My Lambs" (John 21:15)</p> <p>Tel. (845)848-2013</p>	<h3>빛과소금교회</h3>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45분 주일학교 오후 1:45분 청년예배 오후 3:12분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513-1351, cheongs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3>퀸즈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2>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h3>맨큐버빌라델비아교회</h3> <p>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화-토) 금요일기도회: 화요일 새벽 7:30 공요양회 기도회: 매월(화요일) 오후 7:30</p> <p>Tel. (804)584-5780, www.pc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3>브라질 한인교회</h3> <p>담임목사: 한봉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3>브라질 서울교회</h3> <p>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61 Camboi S, Paulo Cep 01528-010</p>
<h3>아르헨티나 제일교회</h3> <p>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p>	<h3>칠레 한인연합교회</h3> <p>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종보기도회: 아침 7:40 요,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3>토론토 가든교회</h3> <p>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전 7:30</p> <p>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3>하와이 행복교회</h3>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3>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h3>멕시코 현지인 교회</h3> <p>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빈천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p> <p>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목회서신



여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교회)

“가장 고귀한 투자”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는 강아지 혹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집에서 키우는 이들이 많습니다. Petco에 가보면 애완동물을 위한 음식 종류가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음식들마다 부쳐져 있는 가격표를 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들에게는 돈이 없어서 음식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하는 데 애완동물에게는 남들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음식을 사서 공급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정상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서 운동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지구 정성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육체를 가꾸기 위해서 운동과 음식 조절과 미용 등으로 지대한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은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과대평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 육체를 가꾸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단지 자신의 육체가 쇠약해지거나 병이 생기거나 혹은 죽음 자체가 두려워서 자신의 육체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가꾼다면 그것이 곧 자신의 육체를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자체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

의 장막이 무너지고 나면 그 육체는 단지 한줌에 지나지 않기 때문 입니다. 한줌에 지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육체가 가진 실체 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실체가 한줌이라는 실체 앞에 가능한 자주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줌의 실체 앞에 마주할 때 우리의 육체에 대하여 과대평가하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또 하나의 함정은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하는 반면에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가꾸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정성을 쏟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가꾸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가꾸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힘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가꾸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물

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가꾸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가진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시 까지 우리의 영혼을 사랑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온 천하를 다 팔아서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우리 영혼과 바꾸자고 한다면 하나님은 온 천하를 판돈보다 우리의 영혼을 선택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가치는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헤아릴 수 없는 만큼 고귀합니다. 자신의 영혼의 가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하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무관심하게 과소평가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우리 영혼의 헤아릴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의 헤아릴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게 될 때 육체를 위한 밥은 꼬박 꼬박 먹으면서 영혼을 가꾸기 위한 말씀 묵상의 밥을 거르는 잘못을 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의

헤아릴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게 될 때 육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운동은 약 같듯이 하면서 영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의 보혈로 값을 주고 산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침 안개처럼 세월을 따라 사라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의 보혈로 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꾸기 위한 계획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과 함께 영혼을 가꾸는 일을 계획해보십시오. 팬데믹이 도래하면서 zoom 영상으로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방식이 보편화 되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 묵상과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나눔의 시간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부분을 자녀들에게 진솔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자녀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나눔을 마친 후에는 여러 가지 기도제목과 놓고 분명한 소리로 한마디씩 마

치 이어 달리기를 하듯이 성령께서 기도제목과 마음을 주시는 대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자녀들이 1세 부모님들이 하는 통성기도는 익숙지 않아도 한마디씩 토박 토박 대화하듯이 하는 기도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에 이끌리어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드리면 성령께서 특별한 은혜를 가족들의 영혼에 임해주십니다. 이런 시간을 가능한 일주일에 한번씩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가꾸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투자하였는지에 대하여 회계를 요구 받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가꾸기 위하여 시간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기회들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은혜의 수단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계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우리 자신의 영혼과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투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결실케 하는 은혜가 따를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의지고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 newsong6364@gmail.com



미국신대륙 정복사의 두 가지 과오 인디언전쟁과 노예제도...그 역사왜곡(4)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2. 비 성경적 노예제도 (Unbiblical Slavery) 두 번째 큰 과오(Peccability)는 비성경적 노예제도이다. 신천지 미국을 개척하기 위해 미국 혁명 직후에 대서양 노예무역이 종식되었으나, 노예제는 공업이 발전한 북부와는 달리 농업이 중심 산업이었던 미국 남부 주에서 핵심적인 경제제도로 존속하였다. 1)노예제도 정착 미국 역사에서 1620년과 1619년은 너무나 대조적이다. 1620년 청교도들이 영국의 국교에 반기를 들고 종교의 자유를 갈망하여 자발적으로 미국에 상륙하였다. 1년 전인 1619년에는 미국 남부에 아프리카에서 강제적으로 잡혀 모든 자유를 잃고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이 도착하였다. 전자는 백인이요, 후자는 흑인이다. 백인은 북쪽에, 흑인은 남쪽에 정착하였다. 백인들은 새 나라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첫 겨울에 막심한 고초를 겪어 거의 반이 사망하였다. 생존자들은 먹거리가 부족하여 하루 한 사람당 옥수수 일곱 알이 고작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다음 해에 첫 추수를 마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 것이 “감사절”의 시작이다.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은 주로 숨을 따는 강제 노동에 종사하였다. 김기훈은 “필자가 대학원 재학 당시 노예에 관한 연구 논문을 쓴 적이 있다.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이 한 가지 공통점을 보여주었다. 북부의 학자들은 모두가 노예제도를 반대하였고 미인도적인 면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남부 학자들은 노예제도를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내용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1780년에서 1804년 사이에 북부 주는 모두 노예해방법령

을 통과시켰는데, 대부분의 경우 해방법령을 점진적으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남부 주에서는 인구가 서부로 이동하면서 노예제도가 확대되었다. 1860년이 되면서 500,000명이던 노예 수가 4백만 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강제로 아프리카에서 납치, 인신매매를 통해 노예로 팔았으므로 무자비한 인권 말살이 가장 큰 문제였다. 2)구약 성경에서의 노예제도는 종신제가 아닌 임시적이었다. 신명기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주제 중 하나는 노예제도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제도를 미국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도를 포함한 현대 노예제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후자는 그들의 고국인 서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납치해 매대한 경우와 그들의 후손을 영구적인 종으로 삼은 경우를

포함한다. 구약은 이런 종류의 노예제도를 정죄했으며(암1:6) 적발 시 사형까지 가능했다(신 24:7, 출21:16).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된 것은 납치나 불운한 태생 때문이 아니라 빛이나 가난 때문이었다(신15:12). 노예 신세가 되는 게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나았으므로 사람들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 빚을 갚거나 최소한 잠잠 곶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노예제도는 종신(終身)제가 아닌 임시적인 것이었다.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나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신 15:12). 놓이면 종이었던 사람은 그들이 일해서 마련한 부의 일정 몫을 차지했다(신 15:13-14). “존 새핀(John Saffin)은 노예제도를 옹호했다. 그는 “기나아에서 몰래 흑인을 수입했다. 그는 이교도들을 문명과 기독교 세계로 데려오는 수단으로 보았다. 그는 하나님은 어떤 자는 군주와 왕자로, 어떤 자는 총독과 주인으로 태어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신하로 지휘를

태생 때문이 아니라 빛이나 가난 때문이었다. 그 당시 의식주가 풍족한 상태가 아니었기에 노예 신세가 되어 굶어 죽는 것 보다는 자신을 노예로 팔아, 아니면 빛 때문에 끌려가 빚을 탕감 받아 최소한 6년 동안 거주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노예제도는 종신(終身)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 6년 동안 종(노예)으로 일을 했으면, 7년째에



르치는 점에서 인종에 근거한 노예제도를 정죄한다(창1:27). 동시에 구약 성경은 경제적인 것에 근거한 노예제도를 허락하고 있으나 엄격히 통제한다. 마크 놀은 미국 혁명이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혁명으로 인하여 얻은 독립의 원인이 영국의 부당한 처사로 인해 식민지배의 노예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독립전쟁에 참여했던 조지 워싱턴과 토머스 제퍼슨 등이 흑인노예를 몇 백명씩 소유한 것에 대해 위선적이라는 것이다. 미국 독립혁명은 반쪽자리 혁명이었고 이 독립정신은 아브라함 링컨에 와서야 흑인의 노예해방을 통한 기독교적인 혁명이라고 주장하였다(Noll, Mark A., Why Should Christians Think of the American Revolution? p95). 그러나 마크 놀의 주장처럼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3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토머스 제퍼슨을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이 흑인 노예들을 몇 백명씩 소유한 것에 대해 위선적이라는 역사의 비판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필자는 본다. 3)노예해방 전쟁 결국 비 성경적 노예제도(奴

농사에 기반을 둔 대농장 체제, 플랜테이션이었다. 특히 조지아, 앨라배마, 미시시피 주는 새 면화 농경지로 확대되어 노예도 더 많이 필요 해졌으나, 1808년에 노예 수입은 불법화 되었다. 1790년에서 1860년 사이에 옛 남부에서 서쪽으로 이동한 노예의 수는 1,000,000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캐롤라이나주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마이클 테드먼은 1989년 “판매자와 노예: 옛 남부의 주인, 교역상, 노예”이라는 책에서 지역 간 이주의 60-70%는 노예판매 때문이었다고 썼다. 노예해방선언(Emancipation Proclamation)은 1863년 1월 1일에 미국의 노예해방에 관하여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발표한 것이다. 그 당시 북부에 대하여 반란상태에 있던 남부 여러 주(州)의 노예를 즉시 전면적으로 해방한다는 내용으로, 남부의 군사 및 경제적 기초를 파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였다는 해석이 있는데, 노예해방의 본질적 실현은 1865년에 미국헌법 수정 제13조가 비준됨으로써 이루어졌다. 남북전쟁이 끝난 뒤인 1865년 12월 18일 “노예제는 미국 연방 및 미국 연방의 관할에 속하는 어떤 지역에서도 금지된다”는 내용의 수정헌법 13조가

농업이 중심 산업이었던 미 남부 주 핵심적 경제제도로 노예 존속 1619년부터 아프리카서 끌려와 1865년 수정헌법 13조 노예제 폐지

의회를 통과했다. 미국에서 노예제가 공식 폐지된 것이다. 그러나 흑인에 대한 차별까지 함께 사라지는 않았다. 1956년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흑인들은 버스에서 백인들의 옆자리에 앉을 수도 없었다. 투표·교육·교통·공공시설 이용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이 통과된 것은 64년의 일이다(1865년 미국노예제도 폐지). 결국 이론이 아닌 실천으로 제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Abraham Lincoln)의 북부 연합군의 승리로 노예해방 즉, 비성경적 노예제도가 완전 폐지될 수 있었다. kimjoyh@gmail.com

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신 15:12). 그리고 그 종이 되었을 때는 부의 일정 몫, 즉 돈을 주라 명(신15:13-14)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버드 출신 뉴잉글랜드의 거부 상인 새뮤얼 슈얼(Samuel Sewall)은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노예제도를 정당시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자손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지상의 공동의 상속인이다. 본질적으로나 자연인으로서 노예제도는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다고 가

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신 15:12). 그리고 그 종이 되었을 때는 부의 일정 몫, 즉 돈을 주라 명(신15:13-14)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버드 출신 뉴잉글랜드의 거부 상인 새뮤얼 슈얼(Samuel Sewall)은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노예제도를 정당시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자손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지상의 공동의 상속인이다. 본질적으로나 자연인으로서 노예제도는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다고 가

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신 15:12). 그리고 그 종이 되었을 때는 부의 일정 몫, 즉 돈을 주라 명(신15:13-14)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버드 출신 뉴잉글랜드의 거부 상인 새뮤얼 슈얼(Samuel Sewall)은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노예제도를 정당시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자손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지상의 공동의 상속인이다. 본질적으로나 자연인으로서 노예제도는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다고 가

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신 15:12). 그리고 그 종이 되었을 때는 부의 일정 몫, 즉 돈을 주라 명(신15:13-14)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버드 출신 뉴잉글랜드의 거부 상인 새뮤얼 슈얼(Samuel Sewall)은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노예제도를 정당시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자손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지상의 공동의 상속인이다. 본질적으로나 자연인으로서 노예제도는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다고 가

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신 15:12). 그리고 그 종이 되었을 때는 부의 일정 몫, 즉 돈을 주라 명(신15:13-14)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버드 출신 뉴잉글랜드의 거부 상인 새뮤얼 슈얼(Samuel Sewall)은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노예제도를 정당시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자손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지상의 공동의 상속인이다. 본질적으로나 자연인으로서 노예제도는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다고 가

동부교계 기사판

뉴저지목사회 "사랑 나눔 운동" 전개

뉴저지한인목사회(회장 이의철 목사)가 어려운 목회자 돕기 "사랑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로하며 힘을 주며 후원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면 P.O. BOX 584 Ridgefield, NJ 07657로 체크 payable to KACANJ 로 보내면 된다.

▲문의: (201)919-2865 총무 김주동 목사

패밀리터치 제 6기 LIT(릿)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제 6기 LIT(릿)이 3월 6일-4월 10일 6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11시 온라인 줌으로 열린다. 참가대상은 3-6학년(선착순 15명 마감)이며 수강료는 100달러(교재 포함). 멘토들과 함께 책 읽는 시간을 가짐으로 학생들이 주도적이고 건강한 책임기 습관을 확립하도록 계획했으며 학생별 개인 역량에 맞는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적인 성경읽기(선택사항)를 포함한다.

▲문의: (201)242-4422

커피 브레이크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워크샵

뉴저지 지역 한인교회 연합운동인 러브뉴저지가 주최하는 '커피 브레이크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워크샵'이 3회에 걸쳐 개최된다. 워크샵은 성경묵상과 소그룹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일반인 45달러, 목회자 및 사모는 25달러다. 일정은 3월 20일(토) 오후 3시, 21일 오후 4시(주일), 27일(토) 오후 3시 줌 화상으로 진행된다.

▲문의: (312)286-4646, bigbell59@gmail.com

4월19-21일 "성경해석" "개혁주의사상연구"

제4회 KAPC "목회와 신학 포럼" 온라인으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조문휘 목사)가 주최하는 "목회와 신학 포럼"이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줌으로 열린다.

KAPC 목회와 신학 포럼은 2018년 10월 필라델피아 기쁨의교회에서 열렸던 "KAPC 신학포럼"에서 출발해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열렸으며 참가자는 미국 뿐 아니라 캐나다와 선교사 등 200여 명이 참여해 뜻밖의 성과를 맺었다.

올해도 지속되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 또 한 번의 연장교육 기회를 갖자는 의견을 반영한 것.

이번 포럼은 "성경해석"과 "개혁주의 사상 연구" 두 방향으로 한병수 교수(전주대 기초융합대학원 교수 및 교목)와 정성국 교수(ACTS 신약학)가 강사로 선다.

총회장 조문휘 목사는 "이번 포럼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할까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 오프라인 집회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온라인으로만 하게 됐다"며 "이번 강사진은 현재 가장 활발하게 저술과 강의 활동을 하며 한국의 개혁주의를 대표할 만한 젊고 실력 있는 신학자로 선정해 내용과

전달에 탁월함이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스케줄은 다음과 같다. 시간은 미 동부시간.

△ 4월 19(월) 오후 7-9시: 성경해석 연구-고린도후서를 중심으로 (1) 정성국 교수 △20일(화) 오전 9시30분-11시30분: "성경해석 연구-고린도후서를 중심으로" (2) 정성국 교수 △오후 7-9시: "개혁주의 사상의 뿌리" (1) 한병수 교수 △21일(수) 오전 9시30분-11시30분: "개혁주의 사상의 뿌리" (2) 한병수 교수.

각 세션은 90분 강의와 30분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된다. 전체 진행은 박성일 목사(spark@jubileekapc.org)가 코디하고 온라인 기술적 지원은 기쁨의교회(북미주)에서 호스트한다.

등록 링크 <https://forms.gle/81rBEscHJEQW5nE9> (정리: 유원정 기자)

등록 링크 <https://forms.gle/81rBEscHJEQW5nE9> (정리: 유원정 기자)



미주성결교회 제44회 중앙지방회 정기지방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회장 이기응 목사, 세미나 등 계획발표

미주성결교회 제44회 중앙지방회 정기지방회

미주성결교회 제44회 중앙지방회 정기지방회가 2월 15일 오전 10시 뉴욕성결교회(담임 이기응 목사)에서 열려 신임 회장에 이기응 목사를 선출했다. 임원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장 이기응 목사(뉴욕성결교회) △목사부회장 김동권 목사(뉴저지 새사람교회) △장로부회장 안성주 장로(뉴저지 새사람교회) △서기 이용우 목사(시온성교회) △부서기 김주동 목사(갈보리교회) △회계 김경수 목사(뉴저지성결교회) △부회계 박광환 장로(뉴욕성결교회).

신임 회장 이기응 목사는 44회 회기 새 회기 사업계획으로 다짐의 3가지 발표했다.

1)교회에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팬데믹 기간에 임원회가 미자립 교회 및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교회들을 순방하며 격려하고 지원한다.

2)전반기에 줌을 이용해 3-4회의 미래목회 세미나를 기획하고 있으며, 후반기에는 2022년 목회계획 세미나를 개최해 지방회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 목회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3)지질학으로 보는 노아홍수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기응 목사는 특히 "삼반기에 계획된 세미나는 코로나 이후 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 아래 교회관, 예배관, 전도관, 신앙관 등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변화가 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변화에 따른 목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진행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유원정 기자)

UMC한교총 사순절 특새연합성회

2월17일-4월3일, '믿음의 글' 공모전도

연합감리교회한인교회총회((KUMC, 회장 이철구 목사, 이하 한교총)가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솟아오르라, Rise Up!"라는 주제로 사순절 특별연합성회를 갖는다. 또 "팬데믹과 나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믿음의 글 공모전을 함께 진행한다.

사순절 특별새별연합성회는 신년 20개주 46개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참여하며 "솟아오르라, Rise Up!"(사40:31)라는 주제로 이시야 22장부터 66장까지 설교한다. 40여명의 한인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과 개 교회 담임목사가 강사로 말씀을 전한다.

또한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믿음의 글' 공모전을 갖는다.

팬데믹 시대를 맞아 성도 내면의 목소리를 담은 글, 성도들에게 희망과 위리가 되는 글, 믿음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품어주는 글,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기록하는 저널링, 뉴

노말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글과 영상을 모집한다.

분야는 신앙간증, 신앙수필, 시, 그리고 영상이다. 원고는 4페이지 이내이며, 영상은 3분 이내로 접수는 4월 5일까지 이메일(akcumc02@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 응모, 접수, 심사, 시상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심사위원은 김영봉 목사, 이진희 목사, 시인 임찬순 목사 등과 평신도들이 맡는다.

시상은 믿음상(전체) 상금 1000달러, 소망상(분야별) 300달러, 사랑상(분야별) 200달러, 은혜상(분야별) 100달러 및 기쁨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작품은 한인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와 유튜브 "기쁨의 언덕으로 TV" 채널을 통해 책자와 영상으로 공개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성서교회 뉴욕나눔의 집에 쌀 기증

뉴욕성서교회 담임 김종일 목사와 교우들이 지난 17일 뉴욕나눔의 집(대표 박성원 목사)을 방문해 쌀 40LB 15포를 기증했다(사진). 김종일 목사는 나눔 가족들을 격려하고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주님

을 바라보고 믿음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었다. 뉴욕나눔의 집은 리스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한인노숙인 쉼터 구입을 위한 모금을 진행에 있다.

▲후원문의: (718)683-8884

애플루트뉴욕, KCC에 손세정제 마스크 기부

KCC 한인동포회관(부관장 남경문)은 2월 22일 뉴욕 워싱턴포드에 위치한 한인기업 애플루트뉴욕(회장 김현중)에서 5000달러 상당의 코로나19 예방 방역용품인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기부 받았다.

애플루트뉴욕은 김현중 회장이 'NICKA K' 기업을 운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립된 종합 코스메틱 회사다.

KCC는 "이번 애플루트뉴욕을 통해 기부 받은 물품을 병합 없이 인근 의료기관과 도움이

필요한 한인동포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CC 한인동포회관은 2020년부터 기증받은 마스크와 세정제를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의 양노원과 요양원, 노숙자 쉼터 하우스 등 세정제와 마스크가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KCC를 통한 물품 기부나 각 후원금 도네이션 문의는 info@kccus.org나 전화 (201)541-1200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KCC 한인동포회관)



뉴욕총신대신학대학원 2021년 봄학기 개강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총신대신학대학원 2021년 봄학기 개강예배

뉴욕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총장 정익수 목사) 개강예배가 2월 15일 오후 7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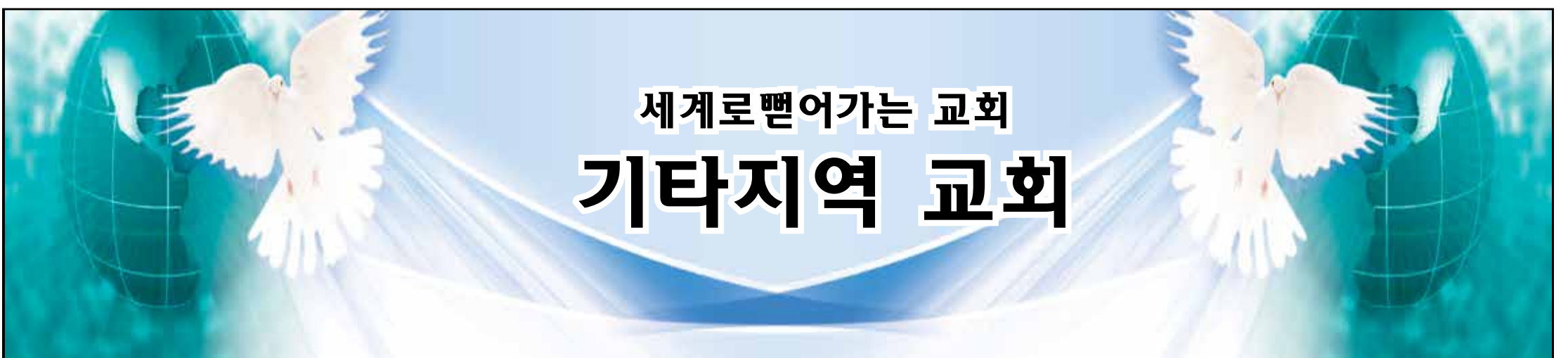
1부 예배는 정대영 박사(총무 처장) 사회로 박희근 박사(교수) 대표기도 후 한상흥 박사(교수)가 성경봉독(왕하2:6-11) 후 재학생학우회에서 특송했다.

설교는 정익수 총장이 "갑질의 영감 받고 위기를 탈출하자"라는 제목으로 했으며 정관호 교수가 봉헌기도, 총장 교시

후 각 교수들의 교과안내와 김종태 목사(뉴욕노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민철 박사(교수)의 광고 후 이대길 박사(이사장)의 축도로 개강예배를 마쳤다.

2부 친교는 코로나19 관계로 뉴욕노회에서 도시락을 제공했으며, 뉴욕노회 목사회원들이 참석해 신학생들을 격려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 받은 자들을 위해 통성기도 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기사제공: 뉴욕총신대신학대학원)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명 어 매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화):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화):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화):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화): 오전 11:30 토요일예배(화):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목회, 유년, 종교행: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시애틀평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www.on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9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cham,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전 5:30(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letr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c.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김형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EM)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804)560-7500, www.l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 예배: 오전 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수요일예배: 오후 5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53)536-6675, www.tacomakr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회장 LA-김시은, LA동-이용은, 남서부-김종률

미주성결교회 총회 서부 3개 지역 신임 지방회장 선출

미주 성결교회 총회 서부 지역 3개 지방회가 정기 지방회를 열고 신임 임원들을 선출했다.

LA 지방회는 지난 2월 8일, LA동지방회는 지난 2월 15일, 그리고 남서부 지방회는 2월 7일 온라인으로 각각 지방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방회에서 선출된 신임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LA지방회 회회장: 김시은 목사(웅기장교회) △부회장: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최은호 장로(연합선교교회) △



미주성결교회 총회 서부 3개 지역 지방회를 열고 신임 임원들을 선출했다. 사진은 LA지방회 임원단(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김시은 지방회장)

서기: 재키카오후 목사(하와이 갈보리성결교회) △부서기: 이병호 목사(임마누엘선교교회)

△회계: 정은순 장로(말씀새로운교회)

▶LA동지방회 회회장: 이용

은 목사(텐버수성교회) △부회장: 박성용 목사(바이셀리아한인교회), 정명철 장로(로고스교회) △서기: 신동수 목사(로고스교회) △부서기: 박창현 목사(가주목양교회) △회계: 주 신 목사(미주세한교회)

▶남서부지방회 회회장: 김종률 목사(디사이플교회) △부회장: 김현석 목사(새민음교회), 이동기 장로(유니온교회) △서기: 신용석 목사(로고스라이프교회) △부서기: 표희곤 목사(은혜샘교회) △회계: 전경구 장로(유니온교회) △부회계: 유원선 목사(오렌지중앙교회)

(정리: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3.1절 감사예배 및 기념행사

3.1절 감사예배 및 기념행사가 대한민국역사지킴이운동본부, 미주한인재단 LA, 미주한인정치인연합회, 세계기도모임 미서부지부가 주최하고, 미주 3.1 여성동지회의 주관으로 3월1일 오후 4시 평화교회(담임 김은목 목사)에서 열린다. 1부 감사예배는 강순영목사가 설교를 맡았으며 기념행사로 끝짓기 대회 시상식을 갖는다.

▲문의: (213)210-4904(미주 3.1여성동지회 회장 그레이스 송)

비영리단체 세금보고 무료강좌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 세금 보고 온라인 무료 강좌를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주관으로 3월 5일 금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churchhomepage.org>) 사이트에서 Zoom 화상 Conference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질문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본 강의의

강사는 제임스구 교수는 현재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과 교회행정 및 커뮤니케이션, NPO, 비즈니스 선교 담당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문의: icmm@churchhomepage.org, (714)393-4595(Center, 문자문의)

담임목사 청빙

밸리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 요건은 △KAPC 총회(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에서 인정하는 정규신학교 신대원을 졸업한 자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되 영어 의사소통 가능한 자 △미국에서 합법적인 사역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목회경력 5년 이상인 자이다. 구비 서류는 △이력서(영문 및 한글) △M. Div 및 최종신학교 졸업증명서 △목사/전도사 안수증명서 △신양간증 및 목회소명서(자기소개 및 가족소개 포함) △최근 가족사진 △설교 2편의 원고(Word or PDF)+해당 원고로 설교한 동영상이나 internet link △2편 추천서 △목회계획서다. 접수마감은 4월 15일이며 서류는 우편(Valley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15204 Plummer St, North Hills, CA 91343) 혹은 이메일(agathos1701@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agathos1701@gmail.com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 허무맹랑”

한미연합회, 램지어 교수 위안부 역사왜곡 행위 규탄

한미연합회(대표 유니스송)는 하버드대학교 존 마크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역사 왜곡 논문을 규탄하며 한인사회가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 위기를 이겨나가야 한다고 당부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보내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한미연합회 로스앤젤레스(KAC)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제국군에 의해 성노예로 희생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악몽 같았던 경험을 훼손하고 부정하려고 시도하는 하버드대 존 마크 램지어(J. Mark Ramseyer, 미쓰비시 일본법학 △모범상 임동순 전문강사)의 논문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매매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과 관련 논평을 아시안 및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와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당시 일본 정부와 일본제국군이 철저히 계획하여 성노예 제도를 운영하였음을 증명하는 풍부한 역사적 증거와 아직까지 살아있는 많은 위안부 피해자들과 이들의 생생한 증언과 더불어 국제연합(UN)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링크:UN원문보기) 위안부를 자발적인 매춘부로 규정하는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허무맹랑(虛無孟浪)하기 그지없다. 그는 일본 정부가 일본은 물론 미국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을 철거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역사를 가리키는 교과서에서 위안부에 관한 언급을 삭제하는 등 고의적으로 역사 왜곡 시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대한 공식적인 인정과 사과 그리고 배상을 회피하고 있는 실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악의적이고 편협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바, 우리는 이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주로 한국을 비롯하여 필리핀, 중국, 싱가포르, 미얀마,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등 여러 아시아 국가의 여성 약 200,000명이 일본제국군의 성노예로 강요당하였다. 여성과 어린 소녀들은 강압과 폭력, 속임수로 끌

려와 끔찍하고 비인도적인 상황에서 성노예로 강요받으며 인권을 유린당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에도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성병, 불임, 생식기관 손상 등으로 인한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대다수의 피해 여성들이 극심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직면하였으며, 트라우마, 수치심, 또는 지극히 사적인 슬픔과 싶은 영역이라는 이유 등으로 자신들의 억울했던 경험을 이야기하기를 꺼려했다. 램지어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여성”, “매춘부”, 그리고 “계약”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납치, 강간 및 성한 학대를 당한 어린 소녀와 여성들에게 잔인하게 자행된 조직적인 성폭력 사태를 왜곡하여 포장하려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끔찍한 경험을 이야기한 많은 여성들의 증언을 훼손하고, 더 나아가 역사적 기성 사실(既成事實)에 관하여 실증을 바탕으로 논의되는 학계 입장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한미연합회는 학문의 자유의 가치를 존중한다. 하지만 “학문의 자유”가 방어할 수 없는 주장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 그의 논문은 신뢰성이 희박하다. 학술 출판의 공정한 규칙은 합리적 토론이 가능한 논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금방 탄로날 허위를 출판하는 것은 여기에서 벗어나. ‘Elsevier’와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는 이 논문을 발간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중 강제된 여성의 성노예 제도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논쟁의 여지가 있는 추정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어떤 출판물도 이런 수준의 노골적인 거짓과 역사 수정주의에 대한 신뢰나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한미연합회(KAC)는 램지어 교수의 문제 논문의 출판을 단지 늦추는 것이 아니라, 논문의 완전한 철회를 촉구하며, 이러한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연합회 제공)



동양선교교회 임직식을 통해 새롭게 세워진 임직자들

뜻대를 향해 달려가며 섬기라

동양선교교회 임직식 장로 2명, 권사 4명 임직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 임직감사예배가 2월 16일 오후 5시 동양선교교회 본당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돼 △시무장로에 김광찬, 조중구 장로 △시무권사에 김성은, 전하순, 정유진, 채영자 권사가 임직했다.

이날 김지훈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김세웅 장로의 기도와 김지훈 목사의 성경봉독이 있는 후 김광수 목사(미주성결교 경증총회장)가 설교했다.

김 목사는 “앞의 것과 뒤의 것”(빌3:12-16)의 제목으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고 했다. 임직자는 세우기 전과 후가 다르면 안되며, 쟁기(달란트)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 앞에 있는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며 섬기는 자가 되라”고 선포했다.

이어 성찬식과 임직패 증정이 있는 뒤 김광찬 장로는 답사를 통해 “오늘 코로나 상황이운데서도 이곳에 오셔서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 우리 모든 임직자들은 겸손하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직예배는 남윤희 목사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성자 기자)



LA 제 3기 전문강사스쿨 졸업식에서 정성훈목사가 졸업생 대표로 자격증을 수여받고 있다.

최우수상 이경아 전문강사 등 27명 졸업

생터성경사역원 LA 3기 전문강사스쿨 졸업식

‘어? 성경이 읽어지네’(생터성경사역원 대표 이예실) LA 지부(지부장 김덕수 목사) 제 3기 전문강사스쿨 졸업식이 2월 20일 오전 10시 아마고데이교회(담임 장재영 목사) 주차장에서 드 라이브인으로 열렸다.

김흥철 목사(산울교회) 인도로 시작된 1부 졸업감사예배는 정재현 집사(생터사역원 LA지부 상임고문) 기도와 강태동 목사(우리하나교회 담임) 성경봉독, 김덕수 목사(LA지부장)의 설교와 김흥철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김덕수 목사는 “큰 용사여”(삿6:11-16)의 제목으로 “사사 기드온은 미디안을 두려워하여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큰 용사’라고 하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졸업하게 하시고 전문 강사로 출발시키셨지만 자신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과 약함을 통해 일하시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원하신다. 우리는 연약하고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앞으로 가르칠 영혼들을 볼 수 있기 바란다. 그 소중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생명과 같은 진리

를 전하는 ‘큰 용사’가 되기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진행된 졸업식에서 김덕수 목사는 학사보고를 한 뒤 졸업생 27명을 대표해 정성훈 목사에게 자격증을 수여했다. 이날 김강현 목사(생터성경사역원 부대표)는 영상을 통해 “졸업을 시작이다, 사역을 위해, 섬김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주저 말고 사역현장으로 뛰어나가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한계에 제한되지 않는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시작하라”고 축사했다.

이어 백성환 전도사(미주 권역장)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이경아 전문강사(최우수 졸업자)의 답사가 있는 뒤 드라이브인으로 졸업생들에게 졸업장과 전문강사 메달을 전달했다. LA 3기 전문강사스쿨은 2020년 9월 14일부터 시작돼 총 27명의 새로운 전문강사를 탄생시켰다. 이날 수상자는 △최우수상 이경아 전문강사 △우수상 김그레이스, 한정기 전문강사 △모범상 임동순 전문강사. 생터성경사역원 LA지부는 2018년 설립돼 현재 56명의 전문강사를 배출했다. (이성자 기자)



소망소사이어티 2월 웨비나에서 신혜원박사가 강의 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신혜원 박사 강의

소망소사이어티 2월 웨비나 성료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2월 웨비나는 백신과 관련된 주제로 많은 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17일 오전 10시 30분 줌으로 진행됐다.

최경철 사무총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웨비나는 의과학자 신혜원 박사가 강의를 맡았다.

신혜원 박사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신문과 유튜브에 있지만 다 정확한 것은 아니다. 코로나 백신의 과학적 근거는 과학저널 미국 보건복지부에 발표된 정보를 근거한다”고 말하며 백신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신 박사는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투여되고 있다. 기존 플루 백신은 플루 바이러스를 약하게 죽여 몸속에 넣어 몸에서 면역체계를 이루는 것이지만 코로나 백신은 다른 방식이다”라며 “코로나바이러스는 왕관 같은 돌기가 나와 있는데 이 돌기가 프로틴 단백질이다.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치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바이러스가 코, 입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기도

에 있는 점막들이 마치 자물쇠 같이 돼 있다가 바이러스와 만나게 되면 탈락하며 문이 열리듯 몸속에 들어와 아프게 되는 것”이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우리가 맞는 백신은 바

이러스를 직접 몸에 넣는 것이 아니라 뽀족한 돌기설계도를 넣는 것과 같고 이것을 넣는다고 해서 코로나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여러 임상연구 결과로 만들어졌으며 연구진행이 다 공개돼 있으니 안심하고 백신을 맞아 코로나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잊지 않고 당부했다. “백신을 맞았다고 바이러스가 나에게 감염 안되는 것이 아니라 감염 되더라도 가벼운 증상, 또는 증상이 없을 수 있기에 여전히 마스크 쓰는 것과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작용에 대한 질문에서는 “사람 개인마다 다 반응이 다르다. 백신을 맞고 감기 증상 증상이 있지만 2-3일 지나면 나아진다. 혹시 2-3일이 지나도 점점 상태가 심해지면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권하기도 했다. 강의 후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으나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한 질문들은 소망소사이어티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소망소사이어티 3월11일 10시30분 웨비나에서는 치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전하게 된다. (이성자 기자)

“국가적 위기극복 부흥운동으로”

CMF선교원 2월 정기모임예배, 설교 강순영 목사

CMF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에서는 지난 2월 6일 오후 5시 CMF회관에서 2월 정기모임예배를 갖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했다.

김철민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김유진 선교사(예멘)와 강순영 목사(JAMA원로대표)의 설교로 진행됐다.

강 목사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게 했던 부흥운동들(골2:12-17, 28)’이란 제목으로 “미국의 대선 후 정치적 사회적 혼란 가운데 있는 미국의 현실을 보며 크리스천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며 “요엘서는 국가적 재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의 경고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엄청난 심판이 있고 재앙이 있으나 회개하고 기도하면 축복의 부흥이 있다”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또한 “유럽 등 서방세계의 기독교 윤리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미국이 성경적 기독교가 회복되어 세계선교를 이끌어가고 기독교를 보호해야 한다. 지금은 친동성애정책, 친낙

태, 사회주의, 모슬렘으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미국은 최고도의 신앙 위에 세워진 진실과 권위를 가지고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잘 수행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세계질서에 앞장 설 수가 없게 됐다. 그러므로 미국은 신앙양심의 회복, 도덕성의 회복, 정의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데 미국이 회복되는 길은 오로지 대각성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 앞에서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형병 목사(CMF)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가정, 교회와 선교의 회복을 위하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합심기도 후 채형병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CMF는 페루의 MK특별집회를 진행했으며, 화상 결혼교실을 준비 중이고 방송결혼교실을 미주북음방송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562)483-0191로 하면 된다. (정리: 이성자 기자)

올 부활절연합예배 키워드 ‘일치와 섬김’

준비위원회 주제·일정 등 발표, 유튜브 동시 송출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규모를 축소하고 방송과 유튜브로 동시 송출한다. 연합예배 헌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섬기는 선교헌금으로 사용한다.

2021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대회장 소강석 목사) 준비위원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합예배는 오는 4월 4일 오후 4시 서울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롬 1:4)를 주제로 열린다. 67개 교단과 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가 참여한다. 설교문 선언문 등은 각 교단 신학자와 목회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후 각 교단의 검토 의견을 반영해 최종 발표한다. 설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장 신정호 목사가 맡았다.

교회 10곳 중 2곳 주일학교 운영 못해

예장합동 총회교육개발원 1257개 교회 설문조사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소속 교회 10곳 중 2곳은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교회도 절반 이상은 부서별 인원이 10명 이하였다.

예장합동 총회교육개발원(이사장 송태근 목사)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1-12월 총회에 등록된 교회 중 무작위 추출한 1257개 교회의 담임목사, 주일학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 포인트다.

조사 결과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는 전체의 22.4%였다. 교회학교를 운영 중인 교회의 부서별 인원을 보면 미취학부서는 70%가 10명 이하로 운영됐고, 유초등부(53.1%)와 중고등부(61%)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30명을 초과하는 교회는 미취학부 2.6%, 유초등부 3.5%, 중고등부 4.4% 등 소수에 불과했다.

주일학교사역자연구소장 고상범 목사는 22일 “코로나19 이후 부모가 교회에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거나 교회 가는 걸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어릴수록 감염에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인원이 더 적은데 회복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부서별로는 초등부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됐다. 전체 교회 중 68.4%는 초등부(초등학교 4-6학년)를 운영하고 있었고 중고등부(62.5%) 유년부(초등학교 1-3학년·61.4%) 유치부(52.2%) 영유아부(25.7%)가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초등부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현장 예배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참석 가능 인원에 맞춰 각 교단 임원을 중심으로 참석한다. 현행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은 사랑의교회 전체 예배당 좌석의 20%인 2000여명이 참석할 수 있다. 찬양은 2021명의 연합찬양대가 찬양하는 모습을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통해 송출할 계획이다.

소강석 목사는 기자회견문에서 “우리는 올해 부활절을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한복판에서 맞이한다”며 “한국교회는 이번 연합예배를 코로나19 시대에 예배공동체의 본질을 굳게 부여잡으며, 교회 연합의 공공교회를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공공성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예배를 통해 한국교회가 부활 신앙을 새롭게 하고 어려움을 겪는 작은 교회를 돌보며

활발한 이유를 “자발적으로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연령대이자 친구를 통한 전도가 활발한 시기여서”라고 설명했다.

교역자의 경우 부목사 전도사 등 전문 사역자가 담당하는 경우가 55.6%로 가장 많았다. 다만 미취학부서의 경우 평신도 사역자 비중이 21.9%로 타 부서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일학교 부서별 인원이 적을수록 미취학부와 유초등부는 사모가, 중고등부는 담임목사가 담당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이번 설문문의 분석을 맡은 총회교육개발원 이사 김창현(인천 송포교회) 목사는 “미취학부서의 교사용 공과는 평신도 사역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등 주일학교 운영 현황에 맞는 공과 개발이 필요하다”며 “인원이 적은 주일학교가 많고 비대면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므로 강의식 공과보다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일대일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은 교회를 위한 공과 개발과 교육에 힘을 계획했다. 노영주 총회교육개발원 하나바이블 교재개발팀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미취학부서는 가정과 연계해 강화하고 초등부는 활성화 방법을 개발하는 등 교육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며 “현재 활용하는 하나바이블을 비롯해 작은 교회들이 비대면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과 자료를 많이 배포하고 활용법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은총을 누리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준비위원회는 이날 연합예배의 준비 경과를 밝히고 주제 해설을 발표했다. 주제해설은 각 교단 신학교 교수들로 구성된 초안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한 후 참여 교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채택했다.

준비위는 “올해 주제는 코로나19 시대에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 교회의 하나 됨을 이루고, 사회의

수도권 20%, 비수도권 30%

21일 전국 교회 회복 후 첫 주일예배

15일 대면예배 확대 조치 이후 첫 주일인 2021년 2월 21일, 전국 교회는 좌석 수 기준으로 수도권은 20%, 나머지는 30%까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

지난 1월 18일부터 정규 예배에서 대면예배가 다시 허용된 가운데, 한달여 만에 예배 참석자 수가 좀 더 늘게 됐다. 각 교회는 따뜻해지는 날씨와 함께 다시 ‘예배의 봄’을 되찾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준비에 한창이다.

세계 최대 교회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는 주일 예배에서 10%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예배를 드렸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1만 2,000명을 수용하는 대성전에 2,400개 좌석에 스티커를 부착해 해당 자리에만 앉을 수 있도록 했으며, 담당 교구장 협의 하에 사전에 좌석을 배정받은 성도들이 참석했다.

이영훈 목사는 주일예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마11:28-30)”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담임 김하나 목사)도 좌석 수 20% 기준으로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김하나 목사는 이날 주일에

개강 앞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혼란

이사회, 정홍호 총장 직위해제...정 총장 “행정소송”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가 개강을 앞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Acts는 지난 9일 제144회 이사회에서 정홍호 총장을 직위 해제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총장 해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총장 직무대행엔 대학원장인 한상화 교수가 선임됐다. 정 총장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정 총장의 징계사유는 사이버대학교 예수스(IESUS)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정 총장

고통에 동참해 부활의 빛을 발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주제해설엔 부활의 주제를 성경과 교회사 속의 부활, 공교회성, 부활의 빛을 발하는 한국교회 등의 내용으로 풀어내며 공교회성 회복의 중요성과 교회의 공적 책무를 거듭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준비위 사무총장 변장배 목사는 부활절 헌금과 관련해 “지금까지 교회를 돌보는 데 집중했지만, 이제는 어려운 이웃과 사회를 섬겨야 할 때”라며 “이웃들이 힘을 얻는 데 보탬이 되면서 동시에 쇠락한 교회의 이미지를 회복해 나갈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에서 ‘시간의 무게(갈1:11-17)’라는 제목으로 1-5부 예배에서 설교했다. 이와 함께 유튜브와 C채널, 화상회의(ZOOM) 등으로 예배 생중계도 병행했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는 주일 1-4부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생중계 예배를 병행했다. 본당에는 좌석 수 대비 20% 성도들이 참여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오정현 목사 외에 다른 목회자들이 설교했다.

이인 새예넬교회(담임 소강석 목사)는 10% 성도들이 참석하는 현장 예배와 함께 유튜브와 화상(ZOOM) 온라인 생중계 예배를 드렸다. 새예넬교회는 ‘예배의 봄’을 기대하는 ‘롤립 주일’로 지키며, 소강석 목사는 1-5부 예배에서 ‘백만송이 꽃처럼(마2:1-2)’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교회는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롤립 한 송이씩을 선물했다.

분당우리교회(담임 이찬수 목사)도 주일예배를 1-3부 예배는 사전 신청자들에게 한해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병행했으며, 4-5부는 온라인 예배로만 진행했다. 마가복음 강해를 진행 중인 이찬수 목사는 이날 ‘나를 보다 다름(막3:16-1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수익과 영리 목적의 예수스에 관여했고 2018년 당시 교수이자 선교대학원장이면서 예수스 총장을 맡아 교원의 겸직금지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사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정 총장은 “예수스는 선교지 나라를 대상으로 선교교육 차원에서 설립, 운영하는 학교”라며 “우리나라 교육부에 등록된 학교라면 문제가 되지만, 우간다 교육국 등에 등록돼 있어 한국 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신앙 관련 다양한 대화방 등장...비기독교인도 스스럼없이 대화 나뉘

클럽하우스의 문화를 즐기며 이용자들과 진솔하게 고민을 나눈다고 한다”며 “코로나19로 만남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귀한 영혼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장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독교 뉴미디어 채널 ‘전도

“전통 가족 개념 해체 의도”

한교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입법 철회 촉구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은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건강한 가정의 구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헌법적 가치의 규정을 의도적으로 삭제함으로써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한교총은 이날 성명서에서 해당 개정안이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핵심조항인 ‘혼인과 출산’(제8조) ‘가족해체 예방’(제9조)을 삭제한 채 발의된 만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제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라고 규정했다.

또 개정안 제2조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전통적 가족개념을 해체하고 사실상 동성혼을 헌법상의 양성혼과

동등한 지위로 인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과 가정 밖에 방치된 이들에 대한 복지적 혜택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미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해 16개의 법률과 조례가 마련된 만큼 필요하다면 이를 더 세밀하게 개정, 보완하면 된다는 것이다.

한교총은 국회에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려는 숨은 의도를 가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건강한 가정을 위해 출산과 양육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지원하겠다고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3월 1일-14일 2매일 정오 1분간

세기총, 미안마 평화위해 기도주간 갖기로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지난 2월 1일 발생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미얀마의 빠른 정국 안정과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세기총 산하 지부들과 750만 디아스포라가 함께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주간을 갖기로 했다.

세기총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그 어느 누가 자신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에서 태어날 수 있거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 없겠지만 살다보면 개인적으로나 혹은 국가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혼란과 위기를 겪는 경우가 없지 않다”면서 “그러기에 우리는 미얀마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무엇보다 그들이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그들이 안정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지 세기총 미얀마 지부장 김군배 선교사에 의하면 지난 2월 14일 양곤 시내에 군 병력을 실은 장갑차가 배치되고 경찰 병력이 대폭 증강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인터넷이 차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난 수일간 일부 지역에서 방화와 강도 사건이 SNS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만큼 치안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 쿠데타 반대 시위가 벌어지면서 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체포 또는 구금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월 20일(현지시간) 미얀마 제2도시 만레이에서 벌어진 쿠데타 반대 시위에서 군

경이 실탄을 사격해 수십 명이 부상을 입고 최소 4명이 숨졌다 는 소식이 들려졌다. 이에 따라 미얀마 쿠데타는 더욱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주민들은 물론 현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마저 공포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얀마는 이미 1948년부터 시작된, 세계에서 가장 긴 내전으로 인해 계속적인 혼란에 빠져 있었고 기독교인들은 반란군과 군대의 박해에 취약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세기총은 3월 1일(월)부터 3월 14일(주일)까지 2주간 매일 정오에 1분간 ‘미얀마의 정의와 평화, 안정을 추구하는 정오기도회’를 실시한다. 이 정오기도회는 전 세계 세기총 산하 지구와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전세계 750만 디아스포라에게 참여를 독려해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미얀마 현지 선교사는 현재 미얀마 사태를 위해 기도를 요청하면서 “어린 아이들의 마음의 안위와 평화로움을 위해서라도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미얀마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고 화평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전했다.

기도제목은 스미안마가 신속하고 평화롭게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 스미안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디아스포라의 안전을 위해 스미안마에 복음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이다. (기사제공: 세기총)



음성으로 만나는 대화의 장 ‘클럽하우스’ 사역지로 뿔다

“성경이 없던 조선시대 사 람들은 구원을 받았다.” 구약의 윤리를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 “창세기의 창조 기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언뜻 기독교 강연이나 교회 설교 제목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지난 14일 음성 기반 SNS 클럽하우스의 채팅방 ‘청어람×민준살롱-구약 질문있어요’에서 이용자들이 건넨 질문들이다.

채팅방은 기독교 연구단체 청어람ARMC가 전성민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장과 함께 개설했다. 전 원장은 이날 2시간씩 두 차례 채팅방에 참여하는 클럽하우스 이용자

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변하며 토론했다. 질문자 중엔 비기독교인도 있었다.

테슬라의 창업주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유명 기업인과 정치인 등이 이용하면서 화제가 된 클럽하우스가 새로운 선교와 소통의 장으로 부상했다. 클럽하우스는 초대장이 있거나 기존 가입자의 승인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 폐쇄형 SNS다. 방을 만들고 운영하는 운영자(모데레이터)와 발언권을 가진 화자(스피커), 대화를 듣는 청자(리스너)로 나뉘어 실시간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곳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자유롭게 기독교에 관한 대

화를 나누는 다양한 방식 등장해 ‘클럽하우스 처치’라는 말까지 생겼다.

클럽하우스를 이용하는 기독교인은 친목방에서부터 QT 방, 토론방 등 여러 주제로 방

신앙 관련 다양한 대화방 등장...비기독교인도 스스럼없이 대화 나뉘

을 만들어 이야기를 나눈다. 다음세대 사역자인 나도움 목사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목사들과 놀아주세요’ 등의 방을 만들어 운영한다. 사람들의 다양한 고민을 듣고자 시작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방은 수백

명이 참여하면서 일주일 넘게 유지되고 있다.

나 목사는 “처음엔 목사라는 걸 밝히지 않았는데, 대화하며 관계를 쌓으니 나중에 목사라고 밝혀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편하게 대해줬다”고 전했다. 그는 “일부 목회자는 상대모사 방에도 참여하는 등

사뭇킴’은 매주 토요일 클럽하우스에 ‘교회의 미래’라는 이름의 토론방을 연다. 지난 13일 첫 주제는 ‘신학대학원 지원자는 왜 급감하는가’였다.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많게는 100여명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전도사뭇킴 편집장인 박종현 함께심는교회

다. 박현철 청어람ARMC 팀장은 “이용자라면 누구나 방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비기독교인과 함께 어울리는 방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교회에선 강단에선 목회자가 마이크를 독점하지만, 이곳에선 권위를 내려놓고 반말이든 존댓말이든 정해진 방의 규칙에 따라 평신도, 비기독교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수평적으로 대화해야 한다”며 “클럽하우스가 건강한 기독교 소통의 장이 된다면 기독교인은 교회 안의 문화를 수평적으로 개선하고, 비기독교인은 색안경 없이 기독교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교의 창 (164)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선교 모라토리엄(Mission Moratorium)

선교 모라토리엄이란 무엇인가? 이는 피선교지인의 입에서 “선교사 여러분! 도움이 고맙기는 하지만 이제 좀 자리를 비켜 달라. 왜냐하면 당신들이 우리 현지교회의 성장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을 들은 선교사나 선교하는 교회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 너무나 황망하고 슬플 것이다. 그간 근대 서구 선교는 하나님나라 확장과 인류공영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하지만 빛이 강한 곳에 어두움도 짙듯이 그들의 과(過)도 적지 아니했다. 힘을 바탕으로 한 제국주의적 선교 양태는 이미 한계성에 도달했다. 오늘날의 한인 세계선교는 어떠한가? 서구선교의 과오를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만의 부끄러운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것은 마치 집안에 가스(Gas)가 가득 찬 것처럼 선교현장에 긴장고 갈등을 유발시킨다.

“아니 뎀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처럼 선교유예(Mission Moratorium)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 아래 선교 모라토리엄이 나오게 된 원인을 분석하며 선제적으로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 나아가 무조건 피주는 선교를 탈피해 현지교회가 리더십을 갖고 건강히 세워지도록 사역을 펼쳐야 한다.

1. 선교 모라토리엄의 유래

모라토리엄(Moratorium)이란 라틴어로 ‘지체하다’란 뜻의 ‘모라리(Morari)’에서 파생된 말이다. 한 국가가 경제·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벌려온 차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지불유예(支拂猶豫)’를 의미한다. 채무를 반드시 갚겠지만 현 상황에서 갚을 능력이 없어 지급을 일정기간 유예하겠다는 선언이다.

1971년 존 가투(John Gatu) 목사의 문제제기 배경은 서구 선교사들의 지도력과 재정지원이 현지 교회의 자립과 자치를 막고 있다는 데 기인했다. 존 가투의 제안 이후 동아프리카 장로교회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본 교단은 ‘자립’을 뜻하는 스와힐리어인 ‘JITEGEMEA’(지테게메아)를 교단의 로고로 정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을 완전 ‘자립’에 맞췄다. 이어서 스코틀랜드장로교회가 가지고

를 가져보자는 것이었다. 2. 선교 모라토리엄의 대표적인 사례 1971년 존 가투(John Gatu) 목사의 문제제기 배경은 서구 선교사들의 지도력과 재정지원이 현지 교회의 자립과 자치를 막고 있다는 데 기인했다. 존 가투의 제안 이후 동아프리카 장로교회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본 교단은 ‘자립’을 뜻하는 스와힐리어인 ‘JITEGEMEA’(지테게메아)를 교단의 로고로 정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을 완전 ‘자립’에 맞췄다. 이어서 스코틀랜드장로교회가 가지고

WCC(세계교회협의회)와 USNCC(미국교회협의회)에 선교유예(Moratorium on missionaries)를 최소한 5년 동안만 실시해보자고 충격적인 제안을 하였다. 즉, 현지교회는 선교사와 선교비 그리고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지 말고 자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

있던 선교지 재산을 자력으로 구입했다. 약속대로 선교사들은 5년간 케냐를 떠났다. 케냐를 중심으로 동아프리카장로교회는 이 사건 이후 변하기 시작했다. 교세가 커져갔으며 결과적으로 5배정도 성장한 450만 명에 이른 것이다. 또한 이 교단의 총회장은 국회가 개원할 때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참석할 정도로 사회적 비중이 커졌다. 특히 동아프리카장로교회의 성장은 타교단의 성장도 견인해 케냐 교회는 걸출한 인물들을 연이어 배출했다.

WCC 6대 총무를 지낸 사무엘 코비야 목사가 케냐 감리교회 출신이다. ‘아프리카 종교와 철학’의 저자 존 S. 음비티 박사 같은 세계적인 신학자도 케냐 출신이다. 이처럼 40여년 만에 동아프리카장로교회의 교세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교단의 자생력을 키운 데 근본 이유가 있다. 이

종교는 틀림없이 부패하게 되어 있다. 과연 교회가 세상을 개혁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교회를 개혁하고 있는가? 요한 웨슬리(John Wesley)는 “부가 증가하면서 교만, 분노, 육적 욕망, 삶의 자만, 세상에 대한 사랑도 비례적으로 증가해 종교의 형식은 남아 있어도 그 정신은 손쉽게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교회에 대해 경고를 했다. 선교 역시 같은 맥락이다. 선교가 주님의 관심인 사람보다 사람의 관심인 물질과 보이는 것에 치중할 때 선교는 타락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모라토리엄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된다.

4. 선교 모라토리엄 예방을 위한 출구 전략

선교사는 첫째로 최대한 현지인과 현지문화를 존중하며 그들과 일체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를 위해 현지인의 문화수준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선교사가 현지인의 생활 문화와 패리가 크면 그들의 마음 문을 열 수가 없다.

둘째는 교과서적인 선교원리로 사역에 임하는 것이다. 랄프 윈터 박사는 현대 선교에 맞게 4P원리로 잘 설명해놓았다. 그 단계는 개척(Pioneer), 양육(Parent), 협력(Partner), 참가(Participant)이다. 이러한 패턴을 따를 때 피 선교지 인들은 발 빠른 성장을 하게 되며 사역의 부흥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는 팀 사역이다. 같은 지역 선교사들끼리는 물론 현지인 동역자와 함께 큰 집을

구상해야 한다. 텐트는 혼자 칠 수 있지만 100층의 큰 집은 힘을 합쳐야 한다. 서로의 은사와 준비도를 존중하고 함께 가야 한다. 한 사람의 100보다 1000사람의 한 보가 낫다. 넷째는 선교사는 하나님의 킹덤을 생각하며 늘 개혁자로 사는 것이다. 선교사가 피땀 흘려 사역을 일구면 알게 모르게 자기 킹덤을 지향하기 쉽다. 더구나 선교현금이 많이 투자된 인프라(基礎施設)가 갖추어지면 정말 그 땅을 떠나기 어렵다. 훌륭한 선교사는 세상에 마음을 비우고 대신 주님으로 채우는 자이다. 주님은 공생애를 출구전략을 생각하며 임하셨다.

넷째는 선교사는 하나님의 킹덤을 생각하며 늘 개혁자로 사는 것이다. 선교사가 피땀 흘려 사역을 일구면 알게 모르게 자기 킹덤을 지향하기 쉽다. 더구나 선교현금이 많이 투자된 인프라(基礎施設)가 갖추어지면 정말 그 땅을 떠나기 어렵다. 훌륭한 선교사는 세상에 마음을 비우고 대신 주님으로 채우는 자이다. 주님은 공생애를 출구전략을 생각하며 임하셨다.

맺음말

선교는 인간의 문화이식이나 알량한 자선사업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나라의 확장이며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가 피선교지 영역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선교의 핵심은 현지인이며 그들이 선교의 꽃이다. 그러므로 선교는 시작부터 철저히 현지인의 눈높이에서 시작하며 그들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선교는 현지 문화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이해가 필요하다.

과거의 무서운 제국주의적(Imperialism) 선교나 여전히 존재하는 가부장적(Paternalism) 선교는 이제 끝장내야 한다. 일방적인 주는 선교에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 전진하는 선교”로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선교사가 자기 킹덤을 세우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선교 모라토리엄은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선교에서 불쏘시개처럼 사라져 없어져야 한다. 이것이 현지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초석이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 새롭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3:30).

jrsong007@hanmail.net

선교 모라토리엄은 기독교 선교의 부끄러운 단면이다. 제국주의적 하향식 선교는 현지교회를 샅샅이 훑어낸 종속하게 한다. 교회는 이제 주는 선교에서 함께하는 선교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나는 진짜인가?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이 어제까지의 진실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는 상황은 기독교에도 치명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변하지 않고는 존립자체마저 장담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진리에 비취진 진실의 허구 즉, 보편적이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를 묻고 있다. 이 질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 밝혀주지는 못할지라도 부분적으로는 참 성도를 조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질문에 답하는 중심에는 진리로 인한 자유가 필요하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이 전제되는 답을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진화에 접근하였다고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토저 목사는 “누가 진짜인가?”에 대해 진짜에 대한 질문보다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여덟 가지 가짜 증상에 대해 설명한다. (1)가짜는 인스턴트이다. “인스턴트 기독교는 한 번의 신앙의 행위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가르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의 영적 전진을 갈망하는 욕구마저 억

압한다. (2)가짜는 인격의 변화를 소홀히 한다. “세월이 흐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변화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다. (3)가짜는 하나님의 징계를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착각한다. “하나님께 매를 맞아 아플 때 우리는 우리가 잠시 옳은 길에서 벗어나 있다고 느껴야 한다. 반면 십자가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옳은 길에 있음을 말해준다.” (4)가짜는 행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으려 한다. “행함을 통해서 용서를 얻겠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상쇄하려던 얼마나 많은 선형을 쌓아야 할지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5)가짜는 신조를 무시한다. “우리가 교리적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진리는 명문화 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명문화한 것이 곧 신조이다.” (6)가짜는 신학을 경시한다.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신학이다. 우리는 어렵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게 결심하고 신학을 연구해야 한다.” (7)가짜는 감정을 등한히 여긴다. “우리는 감정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주어진 우리의 정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8)가짜는 영적 균형감이 없다. “진리는 새와 같기 때문에 날개 하나로는 날 수 없다. 그

라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한쪽 날개를 아래로 쭉서 박은 채 다른 한쪽 날개를 미친 듯이 퍼덕이며 날아보려고 애쓴다.” 위기(危機)는 곧 기회(機會)라고 정의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재앙에 대처하는 기독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세월 혹은 상황에 따라 바뀌고 변화되며 소멸될 진실, 바뀌거나 변화되거나 소멸되지 않을 진리로 이끌어야 한다. 죽음에서 삶으로, 악에서 선으로, 가짜에서 진짜가 되어야 한다. 참 그리스도인은 이미 세상에 뿌려진 복음과 사랑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며 성도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뿌리신 살아 있는 진짜 씨앗인 것이다. hanmackim@hanmail.net

기독교 명저...

(8면에서 계속) 하나님의 택하심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예정과 언약의 조화로운 통일로 인하여 명확하고 확실하게 언약의 유익을 받는다. 예를 들어 모세시대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 구속이 나타났고, 속죄제사 제도를 통해 죄의가 표현되었고, 첫 소산을 바치는 제도를 통해 양자가 설명되고, 정결법을 통해 성화를 보여 주며, 땅의 상속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영화를 나타내었다고 말한다. 이렇게 하여 그는 종종 개혁파

신학의 걸림돌이 되었던 언약과 작정 사이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면을 극복하였다. 이와 같이 에임스는 하나님의 작정적인 활동과 언약적인 참여를 동시에 정당화하는, 그리고 내적으로 일관된 언약 신학의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12)구속의 적용으로서의 교리들(31-41장) 에임스는 구속의 적용 곧 교회에 대한 주제를 두 장에 걸쳐 다룬다. 신비적이고 불가시적인 교회(1권 31장)와 제도적이고 가시적인 교회(1권 32장)를 다룬 다음, 그는 구속의 적용의 길, 또는 수단을 언급하는데 성

경(1권 34장), 교회직원(1권 33, 35장), 성례(1권 26, 41장) 그리고 교회권징(1권 37장)의 순서로 다룬다. 마지막으로서 에임스는 구속의 적용의 시행, 즉 하나님께서 은혜언약을 어떻게 시행하시는지를 설명한다(1권 38, 39, 41장). 그는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함으로써 순차적인 언약의 실행에 대한 언약의 실행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더 완전한 상태로’, ‘일반적이고 모호한 상태에서 구체적이고 더 명확한 상태로’ 전개되었음을 보여준다(1권 38, 2-3장).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은혜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일반적 약속으로 시행되었다(1권 38, 14장).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은혜언약은 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따라 시행되었다(1권 38, 20장).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 교회는 어린이 상태로 은혜언약 아래 있었고, 교회의 사역은 ‘거의 항상 선지자들에 의해 행해진 특별한 사역이었다’(1권 38, 12장).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때부터 구원을 타고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두려움과 속박의 영 아래 있을 때와 다르게 양자의 영을 통해 영적 후사로서 은혜언약의 적용을 자유롭게 받는다(1장 38, 8-9, 1장 39, 9장). 세계의 종말인 ‘그리스도의 재림 때 현재에서 시작된 구속의 적용이 완성될 것이다’(1권 41, 12장). hyojungyoo2@yahoo.com

자유롭게 받는다(1장 38, 8-9, 1장 39, 9장). 세계의 종말인 ‘그리스도의 재림 때 현재에서 시작된 구속의 적용이 완성될 것이다’(1권 41, 12장). hyojungyoo2@yahoo.com

일상칼럼

(8면에서 계속) 성경에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묘사할 때 부부관계, 혹은 부 관개로 묘사하는 표현이 많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분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리 친구” 나

사로가 죽었다고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 주신 우리의 가장 귀한 친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언제나 우리의 최선을 응원하시는 그 분은 정말 우리의 참된 친구다. 주님이 부족한 나를 친구 삼으셨듯이 나도 그 분께 받은 사랑으로 내 삶에 선물로 주신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을 나누며 살기를 원한다. 코비드로 인해 얼굴 보기 힘든 소꿉친구의 생일을 늦게나마 축하하기 위해 오늘은 점심을 사 들고 친구 집 뒤뜰로 찾아가려 한다. lpyun@apu.edu

매일가정예배

허훈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주의 장막에 거할 자(시15:1)

시편 15편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 옷사가 죽은 후 법궤는 오벧에돔 집에 3개월 묵게 됐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제와 통치를 상징하는 법궤를 다윗성에 옮겨 올 수 있을까 하며 기도하며 본시를 쓰게 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

까?”라고 질문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아무도 없다”지만 그럼에도 법궤를 다윗성에 잘 모실 수 있도록 자신을 가까이 받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 주심을 감사하며 이시를 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하는 성도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화 주의 성산에 거할 자(시15:1-3)

1절에서 주목할 단어는 “유할 자”와 “거할 자”입니다. “유한자”는 나그네로 유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대해 나그네요 청지기과 같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행객이 함께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처럼 사는 것이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거할 자” 뜻은 육체로 거하는 것보다 심령으로 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에 늘 마음이 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8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자격 4가지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이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수 주의 장막에 거할 자의 자격(1)(시15:2-3)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가장 먼저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정직”은 히브리어로 “타밈”인데 순수함 혹은 성실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중생활과 반대되는 솔직함이고 변덕이 없는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성품입니다. 특별히 “정직하게 행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는 정직함을 말합니다. “정직”이란 “오직 한길을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전 인격이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늘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굽신거리지 않고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시 만나주시고 즉시 치료해주시고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 주의 장막에 거할 자의 자격(2)(시15:2-3)

주의 장막에 거할 자의 자격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일삼는 사람으로 “의리”를 지킨다는 뜻을 말하는데 의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택해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의”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죄가 있으면 교제할 수 없지만 범죄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두 용서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그의 의로우심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라고 하면 내가 의롭거나 내가 법을 잘 지켜서 완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항상 씻어주시심을 믿고 나오는 것이 바로 공의를 일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옳게 보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허락하십니다.

금 주의 장막에 거할 자의 자격(3)(시15:2-3)

주의 장막에 거할 자의 자격은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그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을 만하다”는 뜻인데 곧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성품을 나타냅니다. 성도는 진실을 사랑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입술로 진실을 말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진실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게 됩니다. 성도가 마음으로도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계셔서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마음에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의 소리에 민감해서 항상 진실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의 분을 보여주셨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토 주의 장막에 거할 자의 자격(4)(시15:3-4)

주의 장막에 거할 자의 자격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 혀로 참소치 않습니다. “참소하다”라는 말은 “혀로 걸어 다니다, 혀로 남의 허물을 지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사람에게도 그 한 말을 책임지며 손해를 볼지라도 그 한 말이 변하지 않을 때 신뢰뿐만 아니라 명예를 얻고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갚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함부로 하나님께 서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서원했다면 손해가 올지라도 갚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서원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며 하나님께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서원할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십니다.

알기쉬운 IT칼럼



윤승준
(재미있는 IT 대표)

구글문서 배우기(2)

중국에서 판다(Panda)곰을 각국에 선물하며 외교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선물이라는 의미는 거저 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판다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달에 10억원 이상을 주어야 하고 또 관리하는 데만 1억이 넘게 들어가 반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판다곰은 중국의 재산이기에 중국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랭핑크라는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이 곰을 쓰다듬었다고 온통 비난을 퍼붓던 중국인들이 야오밍이라는 중국 유명 농구선수가 곰을 안아도 문제를 삼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의 모든 것이 중국 것이라 우기는 중국인들이 오늘따라 매우 밍습니다.

도구에는 단어수라는 기능도 있는데 이것을 누르면 전체 페이지, 단어수, 글자수와 공백을 제외한 글자수가 나옵니다. 이 기능도 내가 글을 쓰는 패턴을 분석하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쓴 글에 도대체 몇 단어를 사용하는지, 또 총 글자의 길이는 얼마인지는 예전 200자 원고지 몇 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에 이어 구글문서의 특별한 기능 두 번째입니다. 부가기능을 누르고 부가기능 설치하기를 누르면 원하는 기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앱과 연결하는 것인데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구글문서는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그중 백미는 내가 쓴 글을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해 주는 기능입니다. 도구를 누르고 문서번역을 누르면 여러분의 글을 원하는 언어로 번역해 줍니다. 먼저 번역될 파일의 이름을 정하고 원하는 언어를 선택한 후 번역을 누르면 원하는 언어로 번역된 새로운 문서가 생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번역을 설치하면 우측에 박스로 구글번역이 나타납니다. 이때 내가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고 번역을 원하는 단어, 문장, 또는 글 전체를 선택하여 붙여 넣고 번역을 누르

그런데 이 번역을 잘하려면 내가 문법에 맞춰 쓸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이나 글에는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역의 오류가 생기는 이유가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한글로 읽으면 조금 어색하더라도 주어, 목적어 등을 정확하게 하여 본문을 수정하고 번역하면 정확한 번역이 가능합니다.

백미는 번역 기능... 문법 정확해야 효과 높아 도구-음성입력은 말하는 것 글로 타이핑 돼

면 번역이 됩니다. 이때 인서트를 누르면 내 문서에 번역된 내용이 삽입됩니다.

실제 여러분이 해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것 입니다.

Easy Clip Art라는 것도 부가기능에 설치해 놓으면 문서를 만들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클립아트를 문서에 삽입하는 방법은 원하는 그림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서에서 그 크기를 조절하고 문장과 어울리게 조절하면 됩니다. 이때 선택된 클립아트는 구글 Keep에 바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내 문서에 설치해 놓은 부가기능은 언제든지 부가기능을 누르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로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용하고 계시지요? 구글문서에도 이런 기능이 있고 정말 편리합니다. 아무리 타자를 잘 치시는 분도 말로 하는 것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발음이 정확해야 하지만 자주 사용하면 더 정확하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구글문서는 기본적으로 구글 Keep에서 자료를 가져와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 우측에 이 아이콘이 보이는데 원하는 아이콘을 선택하고 거기 있는 내용을 바로 끌어와 문서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도구-음성입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언어를 선택하고 마이크를 누르면 빨간색으로 활성화 됩니다. 이 기능은 스마트폰과 달리 잘 꺼지지 않아 입력 중 Enter를 눌러 줄을 바꾸거나 마침표, 쉼표 등을 찍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물론 이 마이크를 한번 더 누르면 이 기능이 종료됩니다.

물론 우측에 보이는 캘린더를 작은 창으로 열어 캘린더를 보며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자료를 참고하면 글을 쓰는 아주 다양하고 멋진 기능을 가진 것이 바로 구글문서입니다.

내가 잘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것과 잘 아는 것은 정말 큰 차이입니다. 대부분 익숙한 것은 늘 사용하던 패턴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따라서 바로 그것의 바깥에 엄청난 것이 있어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검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제가 그렇습니다.

구글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구를 누르면 맞춤법 및 문법 기능이 있습니다. 맞춤법이 틀린 것을 고쳐주는 기능인데 아래한글 만큼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쓸만 합니다.

구글문서를 매일 써왔기에 늘 쓰던 대로를 벗어나지 않았는데 팩스를 보낼 필요가 있어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찾아보다 바로 이 메뉴에서 이 기능을 발견한 것입니다.
(15면으로 계속)



“사랑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포드 에비뉴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리지필드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뉴저지밀알선교단 단장 강원호 목사

장애인 선교 “복음과 사랑의 실천” (2)

강원호 목사



아니라 어머니에게서도 사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잘못된 교육 방법 때문이었다. 헨리 나우웬에 대하여 전기를 썼던 마이클 포드는 이렇게 말한다.

“아기 시절 헨리는 만성적으로 배가 고했는데, 성인이 된 후 그는 이것이 근심하는 기질과 연결이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성인이 된 후 그의 어머니는 음식과 육체적 접촉을 제한하여 어린이의 성질을 길들일 수 있다고 주장한 독일 의사 말에 따라 그를 키워온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런 나우웬의 갈급함은 어린이에서 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되었다. 성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린이는 사랑을 원하고 있었다. 나우웬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가 어린아이임을 안

앞으로 수회에 걸쳐 헨리 나우웬의 생애를 통해 장애인 사랑 실천의 방향성을 제시하려 한다.

헨리 나우웬은 네델란드의 네델트르그 출생으로 1957년 예수회 사제로 서품을 받았으며 다시 6년 간 심리학을 공부하였다. 그 뒤 미국으로 건너가 2년간 신학과 심리학을 통합하여 연구하였다. 마침내 30대에 노틀담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기 시작하여 1971년부터는 예일대학 교수로 재직하였다.

1981년 그는 자신의 풍요로운 생활에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강단을 떠난다. 페루의 빈민가로 들어가 민중들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지만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하버드대학에서 강의를 맡았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영혼의 안식을 느끼지 못했다. 다시 강단을 떠난 그는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쉬의 캐나다 토론토 데이브레이크로 1986년 가서 1996년 9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

을 하였다. 그는 장애인들과 10여년을 함께 살면서 하나님 나라복음을 잘 실천하였다. 하나님 나라복음에 비추어 그의 사랑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헨리 나우웬이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를 평생의 주제로 삼은 것은 그의 부모님 특히 아버지와 관계 때문이었다. 그리고 성장기, 미국에서 의로움, 예일, 하버드 대학에서 경험한 경쟁 구조 그러나 마침내 장애인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에서 장애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 진리를 발견하고 안식을 얻는다. 그에 대한 전기를 통해 이 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모든 책은 이 자신의 문제와 씨름하며 나온 작품이었다. 그의 고민은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의 모든 설교와 저술의 중심 주제였다. 그가 이 주제로 평생을 씨름하게 된 동기에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 관계에서 시작되었다. 헨리 나우웬은 평생 아버지에게 무조건적으로 인정받

고 사랑받는 아버지 사랑에 목말라했다. 그것은 아버지 나우웬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얻으려고 노력한 것을 성취하였습니다. 화려한 경력은 당신의 노력을 풍요롭게 보상했고,



헨리 나우웬은 풍요로운 생활 버리고 빈민가, 장애인들과 생활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 가 그의 모든 설교와 저술의 중심주제

자 한 어린 나우웬의 심리적 동기에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엄격하고, 성취동기가 강하고, 사랑을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 당신은 강한 성격과 강력한 의지와 자신에 대한 확신의 소유자입니다. 당신은

성공이란 근면의 결과라는 인념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약점을 보이는 것은 존경을 만들어나지 못한다는 것과 동정을 구하기보다는 부담감을 드러내지 않게 견디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이 저와 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의 권력이나 영

이런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헨리 나우웬이 경험한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조건적인 것이었다. 헨리 나우웬의 아버지는 성실하고 열심히 하여 성취를 이루면 칭찬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냉담하게 대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에 목말라 했다. 헨리는 아버지에게서 뿐

다. 나는 내가 이룬 모든 업적과 성공의 이면에서 계속해서 안전을 갈망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갈구하는 어린아이이다. 나는 또한 내 속의 아이에게 다가가지 못하면 예수님과 그분에 속한 모든 이에게 다가가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속의 아이와 만날 때마다 나의 무력함과 만난다.”

건강 길라잡이



이영익 내과전문의

임신성 천식

여성이 임신하게 되면 신체에 많은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평소 아무런 질병 없이 건강하던 산모도 고혈압이나 당뇨, 천식 등의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임신 중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질환을 치료하

지 않고 내버려두면 태아와 산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상적인 분만에도 악영향을 끼치므로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 기관지 천식도 치료하지 않으면 태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신 중 천식이 악화

하는 주된 이유는 막연히 약에 대한 불안감으로 천식약 복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천식이 악화되었을 때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천식약 복용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임신 중에 생기는 천식은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임신 6개월째에 접어든 20대 후반의 김 모 씨는 4주 전부터 기침이 나고 걸을 때 숨이 찼다. 처음에는 감기인가 생각했는데 열도 없고 머리도 안 아픈데 마른기침만 계속되었다. 기침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마른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다. 임신 중이라 약을

먹기도 두려워 워서 약국에서 기침약을 사다 놓고 먹지 않고 있다가 병원을 찾아왔다. 김 씨는 임신 전에 아무런 질병을 앓은 적이 없고 임신 후에는 입덧도 거의 하지 않고 무사히 임신 초기를 넘겼다. 현재 직장에 다니지 않고 담배나 술은 일절 하지 않았다. 김 씨를 검사하자 혈압과 맥박은 모두 정상이라고 혈중 산소도 98퍼센트로 정상

임신 중 천식 발생하면 약물치료 필요

치였다. 심음은 정상이었지만 폐음은 조금 감소되어 있었고 약한 천명도 들렸다. 폐 기능 검사상 호기량이 현저히 감소

해 있었다. 김 씨는 임신성 천식으로 진단을 받고 스테로이드 흡입제를 시작했는데 곧바로 기침이 좋아지고 숨찬 증상이 없어졌다. 임신 전에는 천식이 없었던 김 씨의 가장 큰 고민은 출산 후에도 천식이 재발할까 하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임신부의 약 4퍼센트에서 천식이 발생한다고 한다. 임신전에 천식을 앓았던

산모의 경우 3분의 1에서는 천식 증상이 좋아지고, 3분의 1에서는 증상이 나빠지고, 3분의 1은 변화가 없다. 김 씨처럼

천식이 없던 여성이 임신 후에 천식 증상이 시작될 경우는 임신으로 인해서 천식이 생겼다고 보는데 출산 후에는 천식이 재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임신 중 천식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기관지 천식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스테로이드성 흡입 분무제는 태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임신중 천식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약물치료를 조절만 된다면 천식이 없는 산모와 똑같이 정상 분만을 할 수 있고 건강한 태아를 출산할 수 있다.

▲문의:213-383-9388

알기쉬운 IT 칼럼

(14면에서 계속) 가끔은 우리가 사는 모든 방

식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점검하기 전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바른 방향인지도 점검하시고 방법에 대해서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래서 만일 잘못된 점이 있다면 수정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쉬어가기도 하시면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자주] iT에 관한 무료 전자잡지를 스마트폰으로 받기를 원하시면 카톡에서 슬아생한국이라고 검색하시고 놀러 가입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나가자 마시고 기다리시면 일주일에 두 번 전자잡지와 무료 교육에 대한 안내가 뜹니다. 그 방에는 아무

글도 올리자 마십시오. sjyoon7231@gmail.com (끝)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세미나 안내

1.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2. 70이레
3.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미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작대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특/별/기/고



미주3.1여성동지회 회장 그레이스 송

3.1운동 102주년을 맞이하며

오늘 우리는 미주한인사회의 독립운동 1번지 로스앤젤레스에서 뜻 깊은 제 102주년 3.1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날을 맞아 우선 미주한인사회의 반영과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내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

립니다.

102년 전 오늘, 한반도 곳곳에서 울려 퍼진 독립만세의 함성은 신분과 계층, 종교와 사상의 차이를 뛰어넘어 오직 대한독립을 향한 열망과 애국심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3.1운동은 무엇보다 어린 유관순 열사의 희생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래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

밖에 없다는 것이 소녀의 슬픔”이라고 외쳤던 그 애국심이 곧 3.1운동의 정신 이었고, 민족대단결이 바로 3.1운동의 정신이었습니다.

3.1운동 정신은 우리가 뭉치면 우리의 소원도 이룰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특히 3.1운동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 우리 선조 동포들이 앞장서서 주도했음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 신분의 차별이 없이 모든 계층이 한마음으로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서 비폭력 운동으로 나섰으나, 일제는 악랄한 학살로 탄압하여 전 세계로부터 공분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일본은 과거 역사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위안부’ 문제를 포함 제2차 세계 대전의 죄과 등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오늘

의 환경에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일으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최근 “세계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하버드 대학교의 한 교수의 망언은 우리를 다시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크 램지어라는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해 역사를 왜곡시키고 위안부를 포함해 우리 동포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3.1운동은 단순히 일본의 과거사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움직이는 역사를 왜곡시키는 하버드 교수처럼 불순세력에 대하여 가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2년전 이곳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또 다른 100주년의 미래를 평화와 번영을 힘차게 약속하면서 코리아타운 거리를 행진했던 기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미주한인사회는 미국



정부도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소수민족을 평가 받고 있으며, 한인 1세 2세 3세대들이 미주 사회에 힘차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도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 세계에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102년 전, 선열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조국의 광복을 이루어 자유롭고 번영된 대한민국과 미주 등 해외 곳곳에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선열들이 피 흘려 세운 이 조국과 해외 동포사회를 더욱 번영시켜 우리들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새책소개



“코로나 일상속 신앙, 교회, 삶”

저자 박동식 교수

미주장신대 박동식 교수 신간 “코로나 일상속 신앙, 교회, 삶”이 기독교문서선교회에서 2월 19일 출간됐다.

본 서적에서 저자는 코로나 19 시대의 상황을 단순히 커다란 질병이 휩쓰는 시기가 아니라, 여태껏 인류가 걸어왔던 길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고 철학적, 정신적, 미래 세계의 다양한 거대 담론이 급격히 등장할 시대로 진단한다.

2020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릴 시기에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한다. 저자는 이런 시기에는 서로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선불리 상대를

음을 영성, 삶과 죽음, 생애, 만남, 고향과 가족, 열정, 리더, 신앙, 희망, 교회 등을 주제 삼은 글에 담았다.

본서는 △들어가는 말 △제1장 코로나19의 시간을 견디며: 한없이 고독하게, 한없이 소통하며 영원에 잇대어 있기를 소망하며! △제2장 자유로운 삶 또는 죽음? △제3장 봄의 침묵에서 인간의 침묵으로 △제4장 길 위에서 스치는 만남 △제5장 언제나 그리움 저편에 있는 고향과 가족 △제6장 가슴 뛰는 일 하며 산다는 것 △제7장 우리는

는 말로 엮여져있다. 박동식 교수의 ‘코로나 일상속 신앙, 교회, 삶’은 반디북



“하나님 굳게 신뢰하며 모든 일에 온 마음 다해 최선을 다하자”

비난하거나 반복하지 말자고 제안한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현재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모든 일에 온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보자고 권면한다. 이러한 마

그러한 리더를 가질 수 없는가?, △제8장 그림에도 믿는 신앙 △제9장 내일을 희망하지 않는 죄 △제10장 포스트 코로나19 한국교회 과제: 우리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교회를 짓고 있는가? △나가

US(bandibookus.com), 알라딘(aladin.co.kr)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서점은 북음사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기도/칼럼



박현숙 목사 (토론토 서부장교회)

타라프와 카라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시기한 형들은 아버지 심부름 온 동생을 웅덩이에 넣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채색 옷을 염소의 피에 적셔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아픈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피 묻은 옷을 부여잡고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슬피 울며 자기 옷을 찢고 아들을 위하여 애통해합니다.

여기서 ‘찢는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히브리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라프’인데, 짐승이 물어 뜯어 찢는 것을 말합니다. 같

기갈기 찢은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카라’인데, 옷을 찢는 것을 가리킵니다.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경우 자기 옷을 찢으며 극한 슬픔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큰 고통에 처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울분을 터뜨리며 자신을 스스로 찢어버립니다. 마치 짐승이 먹이를 갈기갈기 찢듯이 찢습니다. 인생을 저주하며 자신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남을 탓하며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와 반면에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으며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회개하는 자가 있습니

다. 애통 속에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토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겸손히 마음을 찢으며 새롭게 하여 회복하는 자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분노를 토하며 자신을 찢어버리는 자들이 예전보다 많아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사람이 이기를 포기한 채 스스로 잔인한 짐승이 되어 자신을 처참하게 찢어버립니다. 천하보다 귀한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생명을 경홀히 여깁니다. 자신이 귀한 줄을 모르니, 남도 찢어버립니다. 함부로 말하며 이웃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사랑이 없고 따뜻함이 없습니다. 분노와 미움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모든 잘못을 남에게 돌리거나 세상을 탓하지 말고,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 두고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타라프) 사람이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욘18:4).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요엘2:13).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20 혹은 J-1 Visa
-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Midwest University 와 함께 동역할 인재를 찾습니다
(부설- MIRI 연구소,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

- 교수 1. 경영, 마케팅, 리더십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 2. 신학, 선교, 목회,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3. 국방, 항공, 상담 분야와 관련한 박사학위 소지자
- * Full time or Part time - Online Teaching, 전공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할수 있는 분

- 사역 개발 분야 - 산학협력, 인력개발, IT, 마케팅, 항공, 어카운팅과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자

- 자격 1. 미국에서 High School 과 College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
- 2.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 3. 영주권 스폰 가능
- 4. 관련분야 경력자 선호

• 제출서류 : 이력서, 대학이상 성적 증명서, 자기 소개서
• 제출기간 : November 20, 2020
• 제출처 : jp@midwest.edu